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0 9/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천리안) <http://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사물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가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거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비닐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통권 77호 2000년 9/10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용경·이기원/
물론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0년 9월 1일

2	권두언	발달지체 유아의 예방과 보육교사	이상복
4	보육정책	영유아보육의 전망과 과제	이용경
12	특집 1	통합교육의 이해	편집부
19	특집 2	이웃사람어린이집의 통합보육	편집부
24	특집 3	통합캠프 이야기	정혜정
26	특별강연	독일 쾰른가르텐의 새로운 과제 Lothar Krappmann	
33	현장교육1	산아있는 자연학습자료를 만들며...	임미화
		자연학습을 이용한 벽면 구성	박부자
36	현장교육2	마당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놀이	강영신
40	현장교육3	물과 놀이	장표진
42	현장소식1	권상권 여름연수를 마치고	정연옥
43	현장소식2	종재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	이순덕
44	인물탐방기1	이하 여백과의 만남	홍미숙
46	인물탐방기2	아름다운 경자의 전성시대	박영미
49	오사카에서 온 편지	가람아, 가람아가 위사 느립니다.	변미영
51	어린이집에서 하루	어느 특별한 초대	주혜민
53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	
54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 5개월~10개월	김연숙
58	좋은 그림책 소개	명명 회사 선생님	이진실
60	세상읽기	풍요를 알당기는 햇볕이기를...	박상의
62	사이버 정보망	농림부 어린이 농업교신	임미란
63	여행기	물리의 캐나다 여행	김영수
66	목소리	희망세상 이사 갑니다!	백혜경
67	알림란	편집부	
71	책소개	편집부	
72	보육계동향	편집부	
74	소식과 소식	편집부	
78	편집부에서	편집부	



특집 2



현장교육 1



현장소식 2



보육교사들은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기에 있는 학령전 유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전문가 집단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만 5세 이전으로 간주한다. 이는 만 5세 이전에 평생에 요구되는 모든 능력의 50%가 완성된다는 가정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들은 국가 장래의 초석을 구성하는 무형의 봉사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과제 위에 더 큰 봉사를 요구하는 예는 최근 더욱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 권 두 언 |

발달지체 유아의 예방과 보육교사

이성복 ·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회장,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학과장

이는 최근에 이르러 발달지체 영·유아라는 말이 교육현장의 일상용어로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0세에서 약 9세까지의 연령군에서 또래들의 평균발달과 비교하여 12개월 이전은 2개월이 늦은 경우 발달지체 영아로 보게 된다. 다음 24개월까지는 3개월이 늦어질 때이나, 약 3세 이후는 또래보다 6개월 정도 발달이 뒤떨어진 경우, 발달지체로 부르게 된다. 유의할 것은 뇌성마비와 같은 뚜렷한 의료적 장애가 있을 때 발달장애유아로 칭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9세 이하의 경우 발달지체유아로 통칭하도록 미국 전장애훈육법에도 명시된 바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보육교사들이 관심 있게 관찰해야 할 과제는 잘못된 양육환경으로 야기되는 환경적 발달지체 현상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3세 이전 유아들을 비디오나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면 이는 발달지체를 초래하는 가장 큰 환경적 위험에 속한다.

최근에는 장시간 외국어 비디오 어학 훈련의 부작용으로 잠재적 발달지체 유아들을 상담하게 되는 사례를 흔히 경험하고 있다. 이는 비디오 자료나 텔레비전이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인 상호교류를 방해하는 도구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어른들이 쉽게 간파하지 못할 때 영·유아의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 어떤 측면에는 이러한 발달지체 위험을 차단하는 전문가 집단도 보육교사들이어야 한다. 100명 중 약 80명

의 영아가 12개월에 엄마, 아빠를 표현하게 되는 것은 텔레비전에 의한 학습이 아니다. 영아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약 1년간 엄마, 아빠가 아기의 눈을 보고 미소를 끌어내는 까꿍놀이와 같은 상호반응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은 비디오나 텔레비전이 기계적 물건에 해당하고 그 속의 내용은 일방통행식 작동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성인과는 달리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전달자들이어야 한다.

텔레비전과 같은 일방적 환경 구성은 영·유아들에게는 거의 완벽한 발달지체 촉진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텔레비전의 유해는 미국소아과 의사협의회가 1999년 8월에 발표한 대국민 권고안에서 참고할 수 있다. 즉, 모든 가정에서 3세 이전 유아들에게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해야 하며, 3세 이후 유아들의 경우 하루 최대 시청시간이 약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이다. 이러한 미국 소아과 의사협의회 권고안은 특히 만 3세 이전 영·유아들은 텔레비전 전자 메시지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 준 사례가 된다. 유아들의 발달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언어와 느낌을 교환하는 까꿍놀이와 같은 직접 경험이다. 물론 위에서 예를 든 텔레비전과 같은 비상호작용 환경만이 유아들을 발달지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

2000년에 발행된 유네스코(UNICEF)의 세계 어린이 관련보고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발달지체를 초래하는 한가지 중요요인을 영양결핍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뇌성마비형 장애를 지닌 신생아는 500명당 1명으로 태어난다. 또한 다운증 신생아는 900명당 1명, 청각장애 신생아는 1000명당 1명 꼴로 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개별적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선천성 발달장애유아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출생 인구의 약 5%는 발달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영·유아가 발달에 있어 장애나, 지체 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문제"로 치부되는 편견적 교사관은 낡은 관념에 속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지체 역시 유아기 지닌 독특한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모든 개인이 우열로 비교되지 않는 보편적 개별화 시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있어 보육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 영·유아가 지닌 특성에 합당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책임성과 안내일 것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영·유아들의 발달지체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일은 분명 교사 개개인의 창의적 노력 이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자료와 지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가는 보육교사가 만나게 되는 개별유아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아동들에게 있어 발달적 결함이나 발달지체 현상의 출현은 천재지변과 같은 우리 모두의 기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발달지체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이나 보호법을 특별히 제정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가정, 사회, 국가, 모두의 의무사항임을 명백히 하는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0세에서부터 보호되고 교육되는 국가 의무의 특별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보육교사들이 국가가 비워둔 자리에서 영·유아들의 발달지체 예방과, 발달지체유아를 보호 교육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보육의 전망과 과제

이윤경 · 변화 공동대표

97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보육수요와 정책방안"보고서 및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소의 보육수요조사를 토대로 보육대상아동을 추계하여 보면, 현재 취업모의 0-5세 아동은 1,920천명이며, 이 중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08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1999년 9월말 현재 18,43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655천명에 불과하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선 시설은 원아모집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지역별 보육수요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점과 보육수요가 요구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형태를 고민하지 못하고 단일한 형태의 주간 보육시설만으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주도한 점,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이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민간시설의 생존을 철저히 시장원리에만 맡기려고 한 점, 그리고 양적확충에 상응하는 보육의 질을 담보해 내지 못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분명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동들이 아직 많이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은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지만 그러려면 먼저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보육관련 예산의 문제에 대하여

보육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육아는 가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이것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복지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의 문제는 한 나라의 장래와 사회의 생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로 봐야하며 육아비용에 대한 문제 또한 전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도 사회복지부문의 예산 편성과 실행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사고 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복지서비스를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안전망을 해체하려는 것이며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서비스와 보육관련 예산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각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예산속에서 보육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 집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볼도록 하겠다.

(다음은 2001년도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 정부 재정운영의 기본 관점

- IMF이후로 발생한 정부와 각 부문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재정적자의 해소 실현'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효과를 갖는 정책실시'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될 수 있다.
- 아울러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정당한 조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일반국민들의 동의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1) 국가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요구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비전의 제시가 요구됨

그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수단적으로는 관주도하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왜곡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제 이를 탈피하는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21세기에 요구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것으로 연결됨.

-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적어도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시되고 있음.

2)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하의 사회보장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에서 그간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이었던 군사비 부문이 바야흐로 민생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또한 전쟁의 우려가 불식되는 시점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중요하고 인간다운 삶의 수준임.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로 통일전후의 남과 북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욱 절실히 요구됨.

3)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

- 선진국가들은 이미 20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찾아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채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삶을 구현하게 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경제사회활동으로부터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비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이 일정정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여야 함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의 현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선진국의 1/4 - 1/5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는 1995년 현재 IMF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 등의 복지관련 분야에 정부 재정의 12.2%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이며 아르헨티나 52.9%, 체코 46.3%, 멕시코 27.9% 등 중진국 수준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수준이다.

-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9.2에 불과한 형편임

○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은 중진국 평균의 1/3, 선진국 평균의 1/4에 불과함.

[표1] 정부재정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주 1* : 1992년도 수치임

2** : 1991년도 수치임

출처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국	가	사회보장관련 예산				교 육 비
		보 건 의 료 비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및지역 사회 개발	합 계	
중진국	그 리 스	7.44	13.42	1.27	22.13	8.50
	아르헨티나*	1.99	50.70	0.24	52.93	4.73
	칠 레	11.55	33.70	5.61	50.86	13.36
	체 코	18.02	26.30	2.00	46.32	10.96
	멕시코	3.02	22.15	2.76	27.93	25.88
	말레이시아	5.64	6.01	5.45	17.00	19.99
	평 균	7.94	25.38	2.88	36.20	13.90
선진국	카 나 다	4.66	41.24	1.03	46.93	20.75
	미 국	17.10	29.12	2.63	48.85	2.00
	일 본	1.60	36.80	13.76	52.15	6.03
	네덜란드	13.73	37.99	3.55	55.26	10.18
	프 랑 스	21.71	39.28	1.14	62.13	7.05
	호 주	12.64	32.85	1.60	47.09	7.45
	영 국	13.78	31.25	2.71	47.74	4.43
	독 일**	16.79	45.29	0.58	62.65	0.79
	평 균	12.75	36.72	3.37	52.84	5.08
인 국		0.96	9.99	1.24	12.19	21.44

2. OECD 기준의 사회지출비/GDP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950년대 수준에 못미친다

○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8%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아직도 선진국의 15 - 33%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1/2 - 1/4 수준에 그치는 저수준상태임

○ 이러한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의 1950년대 수치에 불과함.

보육정책

[표2] 선진국의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비의 대 GDP 비중

(단위: %)

구 분	'80	'85	'90	'95
미 국	13.38	13.00	13.54	15.76
영 국	18.32	21.08	19.50	22.52
독 일*	23.71	24.74	23.20	28.01
프랑스	23.47	27.02	26.66	30.07
스웨덴	29.78	31.10	32.18	33.01
일 본	9.87	11.26	11.18	13.80
한 국	-	-	3.90	5.09

자료: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Paris: OECD, 1999).

*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서독의 자료임.

이와같이 복지관련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복지사업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보육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내걸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특수보육시설의 확충,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 확대, 민간보육시설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 반영 추진)과 아동별 지원의 확대를 계획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2001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지 못하다.(표 참조)

전반적인 정부정책의 기초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복지부문의 삭감을 포함한 예산의 긴축운동을 표방하고 있고 복지부의 예산 중에서 보육관련 예산도 이러한 기초속에서 보육의 질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신규예산은 커녕 기본적인 보육수요와 종사자 인건비조차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보육사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질 확보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예산안(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예산 (A)	2001요구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계	145,959	217,975	72,016	49.3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88,778	108,393	19,615	22.1	○ 대상: 14,726 → 17,593명 - 보수수준: 10% 증
○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44,827	71,777	26,950	60.1	○ 대상: 128 → 158천명 - 생보자자녀: 21 → 48천명 - 기타저소득층: 107 → 110천명 ○ 지원수준: 표준보육단가의 40%(전년동)
○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3,363	3,535	172	5.1	○ 지원개소: 7,878 → 8,327개소 ○ 지원단가: 1,000천원/개소
○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569	958	389	68.4	○ 지원개소: 790 → 1,331개소 - 농어촌(국공립시설)지역 운영 ○ 지원수준: 120천원/월(전년동)
○ 보육정보센터 운영	330	484	154	46.6	○ 대상: 6 → 8개소 ○ 지원수준: 11백만원/년(전년동)
○ 보육시설 기능보강	1,202	1,447	245	20.4	○ 신축 11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 35개소, 장비 75개소
○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5,941	14,583	8,642	145.5	○ 대상: 15 → 33천명 ※ 지원범위확대: 농어촌 → 중소도시 ○ 지원수준: 보육료의 60%
○ 민간보육시설 용자금 이차보전	-	15,549	15,549	신규	○ 원금: 5,183억원의 3.0%
○ 어린이집 운영	546	629	83	15.2	○ 과천청사 어린이집: 315 백만원 ○ 대전청사 어린이집: 315 백만원
○ 민간단체지원	167	184	17	10	○ 보육시설연합회 지원: 184백만원 - 전년대비 10%증
○ 행정지원	236	436	200	84.7	○ 보육시설 평가 용역비: 200백만원

2 영유아보육사업에서 요구되는 것

그러나 보육사업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늘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보육사업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은 이제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보육사업의 목적이 특정계층의 보호 아동만이 아니라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최선의 이익준중 원칙이 천명 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말은 곧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든 민간시설을 이용하든 공동육아시설을 이용하든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모든 보육시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은 보육이 필요한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역의 차별이나 소득 수준의 차이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 ①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국공립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절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을 해서 자칫 영리추구로 인해 보육사업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또한 보육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나 서비스 생산비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수납을 하계 함으로써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보육의 질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보육교사들과 시설장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충분한 보수교육등으로 자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 ④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형태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보육의 경우 많은 요구가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없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아보육은 그 특성상 가정으로부터의 이동거리가 짧고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시설이 적합하므로 가정의 주변에 있는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영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영아보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통합이나 연장보육 등의 특별한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보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공립시설에서만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특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3 보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보육의 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을 담보할 것인지는 많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흔히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속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보육서비스가 보편적서비스로 갈수록 보육의 질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인 보육환경을 이야기 할 때 교사대 아동의 비율과 교사처우의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적절한 교사대 아동비율과 종사자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하기에 앞서 보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법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와 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안의 편성, 사업의 관리와 평가를 결정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보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며 보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담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없이 보육사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기초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통합교육의 이해

편집부

1. 서론

특수교육이란 일반교육이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의무교육을 실천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일반교육의 의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이다. 일반교육에서 모든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특수교육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¹⁾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위한 가장 좋은 상황은 비장애아와 함께 교육받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일반학교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아,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에 거부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²⁾

하지만 앞선 특수교육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교육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교사들은 더 이상 특수교육이 일반교육과 다른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교육이란 커다란 틀에서 개인의 교육적 요구의 편차가 심한 아동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장애아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비장애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야 하고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교육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현직형 양성 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5세에서 17세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2만 5천명으로 약 7%(15만 7천명)가 일반학교에 편입되어 있어 특수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1996년 4월을 기준으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을 받을 기관이 적어서, 둘, 교육받을 기관은 있으나 아동발견이 되지 않아 교육의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⁴⁾ 보육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아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보육교사는 아동의 장애를 발견, 개입할 수 있다. 통합교육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교실에서 아동들간의 통합과 부모들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이 교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장애아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시각과 통합교육을 감당할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의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서에서는 보육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합교육의 배경, 수준, 한국사회 속 통합교육의 실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통합교육의 배경

20세기 초 서구에서는 의무교육과 더불어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면서 1965년 빈곤의 세습화를 막기 위한 Head Start가 실시되었고 1972년 경제기회균등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서는 Head Start에서 장애유아가 전체유아의 10%이상 입학시켜야 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Head Start에서 장애유아는 그들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뿐 아니라 또래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⁵⁾ 이후 1975년 통합교육을 가장 적절하게 명시한 장애아 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다. 정상화(Normalization)에 기반을 둔 이 법에 의하면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학급은 정규학급에서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만 분리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반교육과정과 장애아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와 정상아와의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⁶⁾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는 법적, 윤리·철학적, 교육적등 3가지의 이론적 근거를 들 수 있다. 법적인 배경으로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장애아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의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 LRE)"에 의하여 장애유아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해야 된다는 조항이 통합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5조 1항에는 일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5조 2항에서는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완전통합이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주류화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⁷⁾

윤리·철학적 배경을 보면 통합교육은 정상화(Normalization)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상화란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 결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기능적 장애를 지닌 개인이 겪게 될 사회환경적 장애를 최소화하거나 극소화함으로써 가능한 일반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상화에는 네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존중받을 권리와 자신의 생활을 선택하고 통제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인간화의 요소, 둘째, 학습곤란의 문제로 사회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 태도 셋째, 기술의 향상과 유지의 지원, 넷째,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설계이다. 또한 장애아의 비통합 교실배치는 비장애아와의 분리를 초래하고 나아가 장애아들의 시민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상화를 가장 잘 실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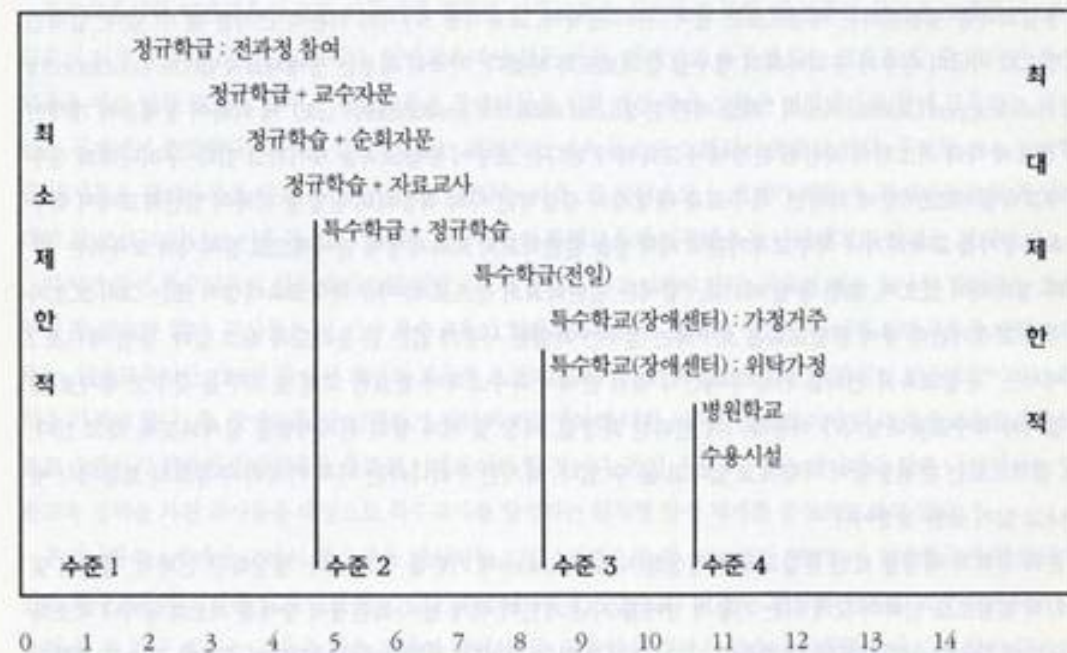
있는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⁹⁾

교육적인 배경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통합된 환경 안에서 배치되는 장애아, 비장애아의 경우 양쪽 모두 발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라 한다.(아래에 좀 더 자세히 언급된다.)

2. 통합교육의 수준

앞에서 언급한 "최소 제한 환경(LRE)"은 1960년대 특수교육 분야의 학자들이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장소를 구분하는데 사용하면서 대두되었다. Reynold(1962)에 의하면 "최소제한 학습장(Least restrictive setting)에서 최대 제한 학습장(Most restrictive setting)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속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1) 병원 또는 치료원, 2) 병원에 부속된 학교, 3) 주거학교(숙식이 제공되는 특수학교), 4) 특수학교(숙식이 제공되지 않는) 5) 완전 특수학급(전과목), 7) 부분적 특수학급(일부과목), 8)보충수업과 보상수업이 주어지는 일반학급, 9)상당이 주어지는 일반학급, 10)일반학급의 열단계로 구분하였다.¹⁰⁾

(그림 1) 참고¹¹⁾



(그림1)은 송준만, 유호순(1997)에 제시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제한 환경(LRE)"은 장애아를 교육하는데 특수학급의 환경이 일반학급과 유사한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와의 교류가 최대한 보장된 환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장애정도에 따라 개개별로 다르게 고안되어야 하며

학습환경은 가장 일반화되고 독립적이며 비장애아와의 상호교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반학급 전지학습 (Mainstreaming= 주류화)

- 장애아동을 일반아동이 있는 학급으로 보내어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장애아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으며 여전이 허락되는 한에서 비장애아와 함께 수업을 하게 한다. 주로 학구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시간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2) 일반주도 특수교육(regular education initiative)

- 1986년 WII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일반학급 전지학습의 2중 교육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반주도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제도는 단일 제도이어야 하며, 장애아를 포함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학교 밖에 있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학교에 포함시켜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교사의 역할을 맡아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장애아들이 일반학교로 등교하여 가능한 모든 교육을 일반교사로부터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특수교육교사로부터 보조교육을 받고 있다.

3) 일반-특수 완전통합(Total Integration)

- 장애아가 전적으로 일반학급 안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까지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학급 안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육교사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협동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가장 통합적이며 장애아를 위한 가장 도덕적, 윤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등한시되다가 최근에 주목되고 있다.

4. 통합교육의 효과¹²⁾

- 통합교육의 효과는 장애아, 비장애아, 교사, 부모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장애아

- (1) 장애아는 통합환경에 있는 비장애아들을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로 습득하게 된다.¹³⁾ 이를 통하여 유사 장애아들과의 집단 속에서는 얻기 힘든 또래 집단이 갖는 효과,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다른 아동들과의 자유로운 교제 경험, 자신의 장애에 대한 피드백을 얻게 된다.
- (2) 장애아는 비장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로 장애아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의사전달기술의 증가등 언어발달과 운동능력, 문제해결등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⁴⁾

- (3) 장애아에 대한 비장애아의 신속하고 적절한 반응은 장애아의 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된다.
 (4) 장애아는 비장애아와의 만남으로 사회적 친숙효과를 가지게 된다. 사회적 친숙효과란 비장애아와의 자연스런 만남으로 비장애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2) 비장애아

- (1) 비장애아들은 장애아들에 대하여 협력을 하면서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이해심, 양보심, 배려하는 마음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다양하게 익히게 되면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습득을 하게 된다.
 (2) 비장애아가 지니고 있는 지식을 장애아에게 가르쳐 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확실하게 다듬는 기회를 갖는다.
 (3) 장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전환하게 된다.

5. 한국 특수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¹⁶⁾

1996년도 현황을 보면(표1.2) 참고) 학교수가 국공립 37개, 사립 72개로 사립의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초등학교(2,218개), 중학교(600개)에 비하여 고등학교(1개)의 수가 매우 적다. 또한 학급수는 초등학교(2,849개), 중학교(681개)에 비하여 고등학교(3개)의 수는 매우적어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설치유형별로 보면 전일제가 608개이고 시간제가 2,778명으로 시간제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별자료실, 방문제는 36개 학급이고 분명하기 않은 형태가 98개 학급이다.

〈표1〉 특수학교 현황 (1996년 4월)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비고
국립	3	93	1,017	195	사립의존도 66.0%
공립	34	746	7,318	1,304	
사립	72	1,275	13,613	2,057	
계	109	2,114	21,948	3,556	

〈표2〉 특수학급 현황 (1996년 4월)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교원수(명)	비고
초등학교	2,218	2,849	21,150	2,849	여의도고 약시학급
중학교	600	681	4,906	681	
고등학교	1	3	31	3	
계	2,819	3,533	26,087	3,533	

〈표3〉 특수학급 현황 (1996년 4월)

구분	대상자	교육수혜자			비수혜자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100%)	일반학급	가정복지시설등	계(100%)
유	16	1	-	1(6)	8.3	6.7	15(94)
초	91	10.2	21.2	31.4(34)	56.6	3.0	99.6(66)
중	58	5.7	4.9	10.6(18)	42.8	4.6	47.4(82)
고	60	4.9	0.1	5(8)	49.3	5.7	55(2)
계	225	21.8	26.2	48(21)	157	20	77(79%)

* 우리나라의 5세에서 17세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2만 5천명으로 약 70%(15만 7천명)가 일반학급에 편입되어 있어 특수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특수교육 발전방안(1996.12)에 밝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모형이 없으며 특수학교의 학제, 교원배치 기준, 시설 기준, 학습편성 기준 등이 개인의 장애에 맞추지 못하며 획일적이다. 특히 분리교육 위주의 특수교육 운영으로 분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도 장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에 있는 중도 중증 장애아를 위한 교육내용이 부족하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아의 교육수혜율이 저조하다. 3-5세 장애유아의 유치원 교육수혜율은 4만 8천명 중 단지 2%(987명)로 4만 7천명(98%)가 가정, 조기치료,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셋째, 직업교육에서는 직업교육 과정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양성 체제 및 자격제도가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비장애아, 장애아, 모두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1997년에서 2001년까지 8,000명이 필요한데 현재 양성인원이 2,000명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라는 명칭은 특수학급, 통합교육,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혼동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숙사(수용률 13.4%(95년도), 통학버스의 부족 등 교육여건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여섯째, 특수교육에 소비할 재정이 부족하다. 95년도 GNP에서 교육예산은 38%이며 특수교육은 1.7%에 불과하다. 또한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6개의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관이 없다.

일곱째, 교육부는 교육, 보건복지부는 치료, 재활, 노동부는 고용등 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각 부처의 복지정책이 비장애인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3. 정리하는 말

흔히들 통합교육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교육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즉, 교육의 공평한 기회란 균일하고 획일적인 교육기회의 부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기회의 부여이다. 즉, 단순한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실제로 효과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¹⁰⁾ 통합교육은 장애아를 일반학급에 그냥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 개개인의 요구를 고려하여 요구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통합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완전통합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장애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여야겠다.

- | | |
|--|--|
| 주1) 송준만, 유효순(1997), 「특수아 지도」,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24-27 | 주13) Bricker & Sandall, 1978; Karnes & See, 1979; Tuenbull, 1982, 박유정(1997), p7, 재인용 |
| 주2) 권상혁, 황윤환, 「일반교육-특수교육 완전통합을 위한 기초연구-탐구조사」, 「특수교육 연구」, 1995, 12, p84 | 주14) Guralnick, 1981, 박유정(1997), p7, 재인용 |
| 주3) 정대영, 「통합교육의 배경과 방향」, 「현장특수교육」, 1996 가을호, p18 | 주15) 송준만, 유효순(1997), 전게서, p20-24 |
| 주4) 박유정(1997), 「정신지체유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정상유아 부모의 태도 비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p8-9 | 주16) 송준만, 유효순(1997), 「특수아 지도」,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11 |
| 주5) 오숙희, 「장애아동과 공동육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공동육아연구원, 또하나의 문화, p235-236 | |
| 주6) 김미경(1998), 「헤드스타트」, 교육아카데미, p23 | |
| 주7) 박유정(1997), 전게서, p5-7 | |
| 주8) 권상혁, 황윤환(1995), 전게서, p79, 정대영(1996), 전게서, p18 | |
| 주9) 정대영, 전게서, p15-16 | |
| 주10) 권상혁, 황윤환(1995), 전게서, p82 | |
| 주11) 참고 송준만, 유효순(1997), 전게서, p10 | |
| 주12) 오숙희, 전게서, p224-226 | |



이웃사랑어린이집의 통합보육

편집부

이번호 우리네 아이들 특집 주제가 장애통합보육인 만큼 지난해 장애통합보육을 주제로 한국보육교사회 현장연구 공모전에서 '발전하는 보육상'을 받은 이웃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갈산이라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한참을 찾아 해매다 (전화 했으면 그래도 좀 빨리 찾을 것을 꼭 고집부리다가 해매요) 들어서니 아이들과 교사들은 점심식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1층의 큰 마루같은 식당에서 오물오물 밥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새삼 정겹고 우리 아이들이 그림더군요.

한참 바쁜 시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나였지만, 그래서 많이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대포(?) 정신으로 수첩들고 이리저리 취재하러 다녔습니다.

이웃사랑어린이집은 97년 12월부터 개원한 141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교회에서 위탁을 받은 시설로 처음 개원을 하면서부터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웃사랑 교회의 목사님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며 알게 된 후배가 특수교사였고, 그 후배를 통해 친분을 맺게 된 다른 장애통합보육시설과의 교류 등으로 장애통합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 이를 이웃사랑어린이집에 제안해서 통합보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사랑어린이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히, 장애통합보육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나 장애통합보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 보세요.

Q 비장애아동(이후 일반아동으로 부르겠습니다)을 시설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이웃사랑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부모님들께는 입시 상담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요즘은 사회적인 인식도, 예전처럼 장애우들에게 심했던 편견들이 조금씩은 나아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장애아동에게 자기 아이가 물렸거나 하면 항의가 좀 들어오기도 해요. 어떤 부모는 심하게 항의하고 어린이집을 관두기도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세요.

현재로서는 부모님들과 그리 갈등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후 부모님들께 지속적으로 장애통합에 대해 인식 전환,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도 요즘 고민 중입니다.

Q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을 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같은 반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겠느냐구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청해서 좋다고 하더군요. 짝이 되게 해달라구요. 졸업하고서도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졸업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한 반, 같은 짝궁이 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요. 일반아동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기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죠.

Q 이웃사랑은 장애아동 중 자폐아보다는 정신지체가 더 많아 보이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꼭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청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중 정신지체가 많은 것 뿐이죠.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할 때 더 빨리 적응이 되는 아이들이 정신지체아들이고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도 더 빨리 친구가 되고요.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도 받게 되고, 다른 친구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자제하게 되죠. 그러면서 친구가 되구요. 그런데 자폐아인 경우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서 같이 교류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친구 사귀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정신지체아동이 장애통합을 실시했을 경우 훨씬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Q 영아는 장애통합을 실시하나요?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몇년을 지내보니 어린 장애아인 경우는 조기교육실을 선호하더군요. 대개 통합보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장애정도가 낮거나 조기교육실에서 일정정도 교육을 받아서 사회 생활이 가능한 아이들이예요. 현재는 4세, 5세, 6세, 7세 각 반에 4명정도가 통합보육을 하고 있구요. 6, 7세반은 완전 통합, 4, 5세반은 부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보다 연령이 1~2세 정도 높아요.

Q 통합보육시설을 보내는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일반아동과 같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아요.

장애아동 부모님 중에는 좀 예민하고 어떤 부분에서 소홀하면 많이 섭섭해 하세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아주 이해심이 넓으세요.

이웃사랑의 장애아동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도 더러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어요. 장애아동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무엇보다도 장애아는 무료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고, 당장 집 밖을 나가려해도 제대로 다닐 수조차 없어 비교적 장애인 복지가 보장되는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Q 요즘은 유사 자폐 등 딱이 장애라고 판정하기도 애매하지만 다른 아동들과 또는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에는 원만치 않은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웃사랑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저 역시 요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우선은 교사의 관찰을 근거로 부모에게 검진 받아볼 것을 권유해야겠지요. 물론 부모로서는 남독을 못 하기도 하고 인정을 할 수 없어 거부하기도 하지만 시설에서는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한 예로 저희 어린이집에도 한 3년간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계속 지켜보니 검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건의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모님은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해주냐며 바로 검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시설이나 교사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이지만 조기 치료나 예방차원에서 아이가 그런 기미가 보이면 검진의뢰를 하고 또 판정받으면 그에 맞춰 빠른 치료가 가능하죠.

Q 장애통합보육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아반이 1반(5명)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 인건비가 100% 지원됩니다. 최대 3인까지 되구요. 장애전담시설은 좀 다르구요.

Q 장애통합을 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재안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올해안에는 장애아동을 별도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몸의 여러 근육들을 제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장애통합을 하려면 재정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재정이 취약한 시설은 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장애통합을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장애아동은 무료로 교육을 하거나 최소 비용만 부담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도 현재의 1:5에서 1:3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수 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선생님도 학교에서 교사를 할 경우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어린이집에 남아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거든요. 어느정도 자기가 희생을 하는거죠. 대개의 보육교사들도 그렇지만요.

또한 양성과정에 특수교육을 전공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보면 몇번은 장애 아동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적어도 당황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라면 최소한의 특수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는 집에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이 모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통합보육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제 장애통합보육이 시작의 단계인데 먼저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며 점차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이웃사랑의 선생님들을 만나볼까요?

Q 4.5세반은 부분 통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처음부터 바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정도 초기 적응이 되면, 즉 3월 2~3주가 지나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통합보육을 실시하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1학기 마칠 때쯤이면 이틀정도만 떨어져서 생활하고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놀이를 하면서 친해집니다.

일반아이들이 초기에 통합을 실시하려면 "재네들 왜 왔어요?" 하고 묻죠. 그러다 5월 정도 되면 서로 익숙해져 친하게 지내게 되요. 이 아이들이 6, 7세가 되면 하루종일을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Q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 통합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은 장애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조기교육실인 경우 아이가 부족한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훈련은 가능하지만 비슷한 집단이 모여 있어 사회성 훈련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장애통합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익히게 되죠. 비장애아동 역시 통합 교육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꼭 장애아가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서로서로 사회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Q 처음에 일반아이들이 장애아동을 만나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처음에는 놀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거부하기도 하지만 역시 아이들이기에 곧 익숙해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장애아동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아이들도 배워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죠.

Q '장애통합 교육의 열쇠는 일반 보육교사가 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장애통합보육을 할 때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해요. 이웃사랑에서도 처음에는 통합교사와 일반교사로 나눠 회의를 하고 전체 교사회의에서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은 통합을 실시하는 반의 두 교사가 좀 더 긴밀하게 반 운영에 대해 의논을 하죠. 통합에 대해 교사들간의 충분한 의견 교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수 교사인 경우 전공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방어적인 교육을 하게 되요. 이럴 때 일반 교사가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적이 많아요.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부탁을 하자면 장애아동도 같은 시각으로 봐줬으면 해요. 일반아동도 보면 어떤 영역별로 더 잘하는 게 있고 조금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장애 아동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각으로 장애 아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했으면 해요. 이제는 일반교사들도 특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올해 처음 통합보육을 하신 선생님은 1학기를 보내고 장애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통합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었어요. 같이 반을 운영하는 통합 선생님과 의논도 열심히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지요.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통합을 하면서 보니 교사의 입장이나 태도가 아주 중요하더군요. 교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니까요. 그리고 교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통합 보육이 더 좋다는 생각이예요.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한번은 같이 근무하는 통합 선생님이 월차를 쓴 날이었어요.

체육수업이 있어서 3층에서 지하까지 내려가야하는데 창조가 안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느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재건이가 한걸음씩 창조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창조가 안가려고 하면 "창조야, 내려가자." 하며 달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교사가 지시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낮잠 준비로 조금은 차분해진 이웃사랑을 나오면서 저 역시 창조와 재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합 시설들이 특수 보육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 지금의 우리 어른들에게 남아있는 편견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만화 책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칠까합니다. (제가 만화광이거든요. 히히)

"해피"와 "당신의 손이 속삭일 때"라는 일본 만화입니다. 작가는 잘 모르겠구요. 두 책 모두 각각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장애를 극복하고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고 세상 속에서 곱게 살아가는 얘기랍니다. 실화가 아니라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물론 재미도 있구요. 특히 맹인견 해피를 보고나서는 개를 너무도 무서워하는 제가 개들을 다시 보게 됐답니다. 꼭 읽어보세요.





통합캠프 이야기

정혜정 · 대구, 한사랑 어린이집

7월 20, 21, 22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통합 캠프를 가기로 했다. 캠프에 참여하는 디딤어린이집, 감나무골 어린이집, 한사랑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모여서 캠프 한 달 전에 날짜를 잡고 장소를 섭외하고 몇 번의 모임을 더 가진 끝에 전체 프로그램과 모든 준비가 다 된 듯 하였다. 그러나 막상 갔다 오면 왜 그리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지... 좀 더 잘 할 것이라는 후회가 생긴다.

내가 근무하는 한사랑어린이집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다. 그리고 디딤과 감골은 비장애어린이집이다. 세 어린이집이 한 달에 5-6번은 만나서 통합수업을 한다. 이런 인연으로 여름캠프는 같이 가기로 했다. 20일 출발하는 그날, 대구 시민회관 앞에 전세버스를 세워두고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짝지어서 버스에 태워주는 것부터가 전쟁 캠프의 시작이었다. 물론 장애아에게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돌봐주시기는 하지만(비장애아도 마찬가지) 교사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나간다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버스에 모두들 태우고 (약80명) 캠프장소인 구룡포 경북대 수련원으로 출발했다. 첫날 도착하여 방 배정시 통합캠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조를 나누어 방배정을 해 주었다. 저녁 식사 후 첫 프로그램인 산행, 코스별로 정해진 게임이나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과 자활 선생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식사시간은 항상 어수선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 둘째날 오전에 야외놀이를 간단히 하고, 점심식사 후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바닷가 물놀이를 하였다.

바닷가에서는 어른, 아이(특히 장애, 비장애) 할 것 없이 모두들 장난치고 밀고 당기고 빠뜨리고 너무들 좋아하고 신나했다. 한참을 놀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정리하고 식사하고 캠프파이어 준비를 하였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서로 손잡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모닥불에 옥수수 구워 먹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이 생겼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캠프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다.

통합캠프라 하여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캠프와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장애아)은 똑같다. 단지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바닷가에서 모든 아이들이 발가벗고 놀 때 누가 장애아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벗고 장애인을 바라봐 준다면 그들의 사회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 후 일찍 대구로 출발하였다.

피곤하여 다들 잠든 버스 안에서 감골어린이집의 한 아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선생님, 한사랑 친구들은 우리랑 똑같은 친구인데 머리가 조금 아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 네가 그 머리 아픈 친구를 좀 더 잘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독일 킨더가르텐의 새로운 과제

강의 : Lothar Krappmann · 막스플랑크 연구소 교수

옮김 : 윤선영 ·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아래의 글은 지난 7월 21일 진행된 '독일 교수 초청 강연회'의 강연 내용으로 이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적 질-정책과 교육간의 긴장영역에 있는 교육의 질,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킨더가르텐"이라는 말은 약 160년 전에 만들어졌다. Friedrich Froebel이 그 당시 교사가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교육하였던 곳으로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 후 킨더가르텐을 알게된 학교 교사들은 킨더가르텐이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제도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킨더가르텐은 약 30년 전까지 주로 사회적인 어려움에 놓여진 어린이들을 위한 기관으로 머물렀다. 또한 가족 내에서 잘 돌보아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관에 있어서도 독일은 전통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아주 오래 전부터 어린이 "보호소"가 있었다. 이것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급여로 인하여 많은 가족의 부모가 둘 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홀로 있었고 방치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어린이들을 부모가 일하러 나간 시간 동안 돌보기 위해 보호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설도 마찬가지로 킨더가르텐이라 불리게 되었다.

1. 현대의 킨더가르텐

오늘날까지 독일 킨더가르텐에는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생각이 숨겨져 있다. 킨더가르텐은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을 방치로부터만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발달에는 항상 반응을 해 왔다. 독일의 가족은 점점 작아졌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단 하나의 형제나 자매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동일연령의 놀이상대가 필요하다. 주택가에는 함께 놀 친구도 별로 없으며 혼잡한 교통이 가로막고 있다. 어디에서 어린이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킨더가르텐에서이다.

또한 오늘날 킨더가르텐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거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중 2/3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들은 가족의 경제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가족 내 과제에만 제한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직업적, 사회적, 공적 삶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자기 계발은

바로 자녀가 다닐 킨더가르텐에 의존해 있다.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있게 해 주고, 보육에 의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관심사는 드디어 정치적 책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는 누구든지 어린이가 원한다면 킨더가르텐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3-6세 정도의 어린이들 중 약 90% 정도가 매일 킨더가르텐을 다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킨더가르텐은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부모의 직업적 생활, 가사일, 자녀양육을 꾸려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는 사회교육학적인 기관이다. 전통적으로 Froebel 시대에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킨더가르텐은 또한 어린이들의 능력을 촉진시켜야 하는가?

이 과제 또한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킨더가르텐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교육자들은 항상 어린이들의 능력을 장려할 때 그들이 학교의 학생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킨더가르텐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나 인지적 훈련을 시키는 일은 거부되었다. 즉 그런 공부는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어린이들은 놀기, 움직이기, 이야기 듣기,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림 그리기, 만들기, 조형놀이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때 어린이들의 질문, 경험, 걱정, 어려움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소위 상황중심교육이라는 유아교육의 흐름이 있었다. 상황중심교육은 어른에 의한 학습요구가 아닌 어린이들의 생활상황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기에 그렇게 명명되었다. 이 교육안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킨더가르텐에서는 어린이들과 가까운 주제, 예를 들면 가족, 우정, 신체와 질병, 또는 애완동물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어린이들은 능동적이고, 스스로 발견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발도르프킨더가르텐, 레저교육이나 몬테소리교육을 하는 킨더가르텐들은 나름대로 고유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유아교육(학)자, 교육 정책가들은 이렇게 교육의 내용과 길이 다양한 것으로 충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킨더가르텐의 다양한 교육이 과연 모두 수용될 수 있는가? 차라리 어린이들의 능력, 지식,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이로운 것은 아닐까? 킨더가르텐은 특별히 집에서 별로 (교육적) 자극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킨더가르텐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는 것은 혹시 사회주의적 통제에 있었던 구 동독과 자유-자본주의의 구 서독이 통일됨에 따라 부추겨진 것은 아닐까?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나 좀 더 아니다 쪽에 더 가깝다. 구 동독인 동부지역에서는 정치적 전환(통일)이 있은 후 통제되고 규제된 보육시스템과 학교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대단히 컸었다. 그래서 별 비판 없이 서부지역(구 서독)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였다. 몇 년 후, 서부의 킨더가르텐과 학교가 의무화된 교육목표와 바람직한 교육작업에 대한 표준이 너무 적게 제공되고 있다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많은 보육교사, 학교교사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이 열려 있고, 복잡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요구하였다.

동부 독일에는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형성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가 있다. 청소년들 간에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많이 생기고, 낮은 문화나 다양성을 배척

하며, 민주적 제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불안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배움 능력을 지니고, 세계로 열려 있으며,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길은 킨더가르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다. 학습능력, 세계로 열림, 공동책임 그것은 바로 킨더가르텐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활동의 중요한 세 가지 목표가 되었다.

II. 킨더가르텐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활동의 중요한 세 가지 목표

1. 개선된 학습능력(또는: 평생학습은 킨더가르텐에서 시작한다)

발달심리학자와 학습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기에 학습의 중요한 근원이 생긴다고 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질문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스스로 그 설명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 때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어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많은 부모나 (보육)교사들은 자녀나 담임을 맡은 아이들이 학교에서와 같은 학습에 대한 압력에 너무 일찍 시달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방법 말고 그 외에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학습방법도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다. 학습심리학자들은 킨더가르텐에서의 학습은 학교에서의 학습에 순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학교의 학습이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특성을 지닌 어린이들의 학습에 오히려 순응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어쩌면 대단히 놀랍고 아마도 비현실적이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다. 어린이들의 학습방법이 정말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다가올 미래의 학습은 지나간 과거에서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아주 의미 있는 의견도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매우 빠르게 고물이 되어버려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뒤떨어진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인간은 수많은 근원에서 나온 정보를 소화해야만 한다. 그 가운데 점점 많은 모순과 다중적 의미가 생기고, 인간은 그것들을 다루어야 한다.

독일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소장 Markl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학교 학습의 연장은 평생학습이 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의 학습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며, 매우 능동적이고, 어떤 것이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고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발달시킨다. Markl 교수는 바로 이것 - 호기심, 자발성, 발견, 다양한 결과에 대한 판단 - 이 평생학습의 원천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킨더가르텐에서 평생교육이 시작되기 위해 (보육)교사와 교육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들 주변에서 체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학자들은 또한 (보육)교사의 과제가 어떤 사물(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될 수 있는 대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이든 무엇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들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발견하고 찾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인간적인 발달과 삶, 인간적인 문제 해결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 네 가지 능력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 첫째, 어린이들은 스스로 능동적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행동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이것을 자신의 효능을 체험한다("self-efficacy")고 한다.
- 둘째, 어린이들은 질문을 받은 어른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것을 인식한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도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만이 협력작업을 할 수 있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셋째, 능동적인 어린이들은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 종종 어려움이 있는 것을 체험한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참고, 도움에 대한 경험을 모아, 지탱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듯이, 저항력을 기른다("resiliency").
-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많은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들은 협동력의 장점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촉진시키는 킨더가르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이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기를, 그러나 특히 능동적인 어린이들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작업을 시도해 보려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학습이 현장에서 어떻게 촉진될 수 있겠는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방법을 택하는 것이 매우 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젊고 능동적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표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다:

2. 다양함과 새로움에 대한 대처(또는: 세계를 향한 열린 자세는 킨더가르텐에서 그 기초가 확립된다)

독일 국민의 거의 10% 정도는 다른 세계에서 취업을 위해, 전쟁을 피해, 또는 망명자로 이민 온 사람으로서 때



로 자녀를 데려왔거나 독일에 와서 자녀를 두게 된 경우가 있다. 어떤 도시들은 그 퍼센티지가 훨씬 높다. 외국인 자녀가 절반이 넘게 다니는 학교나 킨더가르텐도 있다. 그러나 이민이나 망명에 의하지 않고도 독일은 주변 이웃나라들과의 밀접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로나 독일의 경제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회(복지학) 학자들은 이러한 "복합문화적(multikulturell)" 다양성이 바로 미래의 사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킨더가르텐에 다니는 연령의 어린이들은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좀 더 나이가 들고나면 자신들의 주변 - 특히 계층적 문제가 있는 곳 - 에서 표현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수용하게 된다. 우리는 킨더가르텐이 이러한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있는 곳이라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국적,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어린이들과 킨더가르텐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의식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어린이들의 다양함을 숨길 것이 아니라, 킨더가르텐의 일상적인 생활의 폭을 넓히고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킨더가르텐에서 외국인 교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독일 부모뿐 만 아니라 이주민들 자녀의 부모들의 참여가 교육기관과 가정과의 협력작업에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킨더가르텐의 내·외에 밀도 높은 멀티문화의 현실세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존중과 인내가 성장할 수 있다.

3. 어린이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또는: 킨더가르텐에서의 민주적인 생활)

앞에서 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에 대하여 어린이들 스스로의 자율적인 행동을 강조했었다. 어린이 성장·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린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견해를 관철시킨 바 있다. 그들은 물론 부모, 유아교사, 학교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족, 유아교육기관, 학교, 그리고 기타 사회적인 주변세계의 일상 생활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의 생활구조의 형성에 관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이 배우게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미 어린이들은 몇몇의 과제를 해내기도 한다. 킨더가르텐과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관으로서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것은 유아교사, 학교교사가 킨더가르텐과 학교에서의 학습과 생활에 대한 책임받은 일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킴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 어른은 자신들의 책임을 뒤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타당한 말이다. 어린이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소망이 있고, 경험도 있고, 한 가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 더 좋다고 하거나 다른 일 보다 이 일을 더 선호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희망, 경험, 이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배려를 해 준다면, 자신들의 이유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의 희망사항에 대한 이유 있는 거절도 진지하게 수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아이가 다른 생각이나 제안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거절할 수는 없다. 대부분은 토론이 공동의 결정으로 이끌어 준다. 이러한 공동의 결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그들의 가족, 유아그룹, 학교의 학급에 소속되는 것이다. 어린이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놀이터 공사, 학교 운동장 구조 짜기, 자유시간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교통규칙 등에 직접 참여한 모임, 어린이 프로젝트, 어린이와 청소년 의회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일의 목적에는 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해당되었고 킨더가르텐에 다니는 연령의 어린이(유아)들은 제외되었었다. 유아기 어린이들에게는 규정된 참여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다.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의 주변세계를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 킨더가르텐 아이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놀이감들과 자료들을 교실의 책장에 정돈한다든지, 아침식사 준비를 함께 하고, 부모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계획하며, 다음 야외활동에 대하여 의논을 한다.

때로 어린이들은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때로는 어려움을 잘못 평가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어떤 교사는 어린이들이 잘못 결정한 것을 물러 수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어린이들이 계획한 일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해롭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교사가 보호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때가 많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좋은 조언이나 새로운 고려에 대하여 열려 있게 되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거기에 바로 어린이들에 대한 인정이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항상 그러길 원하듯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과 참여는 정치적인 목표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공동으로 책임을 질 준비는 이미 어린이들로부터 일깨워져야 한다.

III. 교육제도의 하나로써 킨더가르텐

나는 독일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시급해진 킨더가르텐 어린이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세 가지 교육목표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 복잡해진 세계에서 개선된 학습능력, 복합문화의 세계에서 인내의 촉진, 삶의 공동적인 구성에의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목표들은 킨더가르텐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다.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지지할 때 비로소 도달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작업은 종종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날 어린이를 위한 모든 기관이나 시설의 네트워크(Netzwerk) 안으로 킨더가르텐을 통합하기 위한 커다

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킨더가르텐과 연결되어야 할 첫 번째 '기관'은 가족이다. 부모가 자녀를 그저 '보호'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킨더가르텐에 맡기지 않고, 킨더가르텐과 함께 어린이들의 교육과 축진을 나눈다면, 교사와 부모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그러니까 외국인 부모들까지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킨더가르텐에서는 이러한 협력작업이 진정한 교환이 아닌 그저 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교사들이 부모로부터 통제 당하고 싶지 않아 하며, 많은 부모들은 킨더가르텐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회적 행동, 평화로운 갈등해소, 자립심, 책임감, 기본적인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와의 동조 없이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가 (킨더가르텐 교사와)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린이들은 가족과 킨더가르텐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킨더가르텐은 도움을 줄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독일에는 부모의 교육문제를 지원해 줄 수많은 기구들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기구들은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여 종종 애용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이러한 기구들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 기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종종 킨더가르텐을 방문한다. 그들은 부모들과 함께 가족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거의 모든 부모가 겪는 교육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좋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자녀와 진정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족 상담자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진정 어려운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 어떤 가족은 위기를 겪는다; 혼자 자녀를 기르며 자녀양육과 직업을 함께 하는 어려움을 가진 편모가 있고, 실직과 가난, 그리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도 있다. 어떤 도시는 특별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킨더가르텐과 교육상담의 공동협력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킨더가르텐과의 협력작업을 해야 하는 곳으로 어린이들이 졸업 후 가게될 학교가 있다. 킨더가르텐에서 어린이들의 학습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 학교는 킨더가르텐과, 킨더가르텐은 학교와 더욱 협동함으로써, 킨더가르텐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어린이들을 해치는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구들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기구 중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어린이 음악학교, 어린이 박물관, 운동그룹, 예술학교, 기타 등등. 어린이들은 킨더가르텐에 갇혀서는 안되고, 이러한 제공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킨더가르텐과 이러한 기구들과의 긴밀한 연결도 있어야 한다.

킨더가르텐, 가족, 학교, 그리고 기타 모든 기구들은 함께 어린이들의 인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자극과 도전의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학습능력을 지닌, 세상에 열린, 책임을 질 어린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살아있는 자연학습자료를 만들며...

임미화 · 부천, 동그라마이러닝

내가 동그라마에서 생활한지 4개월이 조금 넘은 듯하다.

동그라마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산행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부천에 있는 산도 별로 가본 적이 없다.

동그라마 덕분에 원미산, 성주산, 작동산, 소래산 등 정말 많은 산을 다니 왔었다.

큰 아이들은 산행을 하고 아가들은 시원한 나무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고 이곳 저곳에 널려 있는 자연물들을 직접보고, 만지고 하며 자연의 놀라운 힘(?)을 느끼는 것 같다.

산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끔 이름모를 풀들을 가져와 "선생님! 이게 무슨풀이예요?" 하면 "글쎄, 뭐지?" 하며 슬쩍 위기를 모면하기도 여러번...

교사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과 알아보고 그것을 잘 보관하여 자연학습자료나 환경구성 등 일단 남겨보자고 교사회의 때 제안이 되어 산행에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그래서 산행을 할 때마다 아이들과 풀을 뜯기 시작했다.

산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지 않은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 풀 저 풀을 뜯으러 다니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하지만 아이들

을 위해서라면... 사실 조금의 걱정은 된다. 대신 우리가 보관하여 보호(?) 아이들도 신기한지 "선생님! 이게 이름이 뭐예요?"라고 연신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름을 알수 없는 선생님들은 안되겠다 싶어 산행할 때마다 '식물 도감'이라는 목격한 책을 들고 가기로 했다. 아이들은 식물도감을 이용해 선생님과 직접 이름을 찾아보고, 선생님이 풀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 해주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숲속을 헤집고 들어가서는 같은 것을 찾아와 맞추어 보기도 하며 돌아올 때 쏙이면 이런저런 것들을 한무더기 쥐고 온다.

이름 하나하나를 알게되면서 아이들은 자연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관

찰력이 풍부해진 듯 하다. 이제는 산행 때 굳이 교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가져와 교사에게 숙제를 던지며 한곳에 오래 머무는 산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코앞 놀이터만 가더라도 꼭 손에 뭔가를 가지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오만잡다한 쓰레기까지... 아이구...

식물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취한 식물의 이름을 알고 그 식



물들을 신문에 잘 넣어 형체가 상하지 않도록 말려야 한다.

식물 표본을 만들기 위해 말리는 작업부터가 쉽지는 않았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동그라미로 돌아와 보면 시들어 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우리는 산행시 두꺼운 책을 (두권의 책은 정말 무거웠다.) 들고 다니며 채취하는 즉시 보관을 하기로 하였다.

풀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풀이 다 마르면 식물들을 잘 뜯어내어 시용지에 잘 붙여 모양을 정리한다. 그리고 코팅을하여 완성하는데 채취하는 것부터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완성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고 좋은 모양이다.

"선생님 이걸 뭐예요?" "응 이걸 ○○산에 갔을 때 가지고 온 거야"

"우와, 예쁘다" "어! 이걸 내가 뜯은 거다." 하며 연

신 말하는 아이들.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해 주는데 그걸보고 있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하고 예쁜 눈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의 애정어린 손길과 숨결이 담겨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자료"라 하기로 했다.

여름 연수때 선생님들께 우리가 만든 것을 보여주자 하신다.

조금의 설렘을 안고 '불광역'이라는 조금의 먼 곳까지 비가오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분 좋게 갔다. 우리는 조금(?) 늦은 시간 도착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나의 시야에 잡혔다.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우리가 만든 표본을 예쁘게 붙여 놓아야 한다. 하얀 벽에 붙여 있는 표본들을 멀리서 보니 더 멋있어 보인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주셨다.

정말 기분 좋게 그날의 강의를 받을 수 있었다.

자연물을 이용한 벽면 구성

박부자 · 부천 동그라미어린이집

꼬질꼬질한 벽이 있는 좁은 현관을 들락거릴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환경구성을 해 벽에 붙여도 꼬질꼬질하게 버티고 있는 벽 때문에 작품은 늘 빛을 잃은 느낌이었다.

경험상 아이들의 손때묻은 환경구성이 질리지 않고 정감이 있기에 그런 방향으로 "독특하고, 아름답고, 아이들과, 교육적으로 오래가는 벽, 벽, 벽?"을 되새기며 고심고심...

마침 현관의 환경구성을 내가 맡은 터라 책임도 막

중하여 어찌할꼬 하며 들락거리다가 실내에 있는 아래벽을 보고 그림을 잡았다.

(실내에서 아이들이 부담없이 만지고 낙서해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도배후 전체적으로 아래부분만 투명 시트지를 붙였는데 수성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도 잘 지워지고, 벽에다 모자이크를 해도 부담없고 아이들의 작품이나 학습자료를 눈높이에 붙였다 때도 깨끗함)

또 아이들과 동그라미 앞 넓은 코스모스 밭을 산책

하는 과정에 자연미가 있는 꽃잎, 나뭇잎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과 식물에 대한 공부도 하며 그것들을 찾아 바쁜날들을 보냈다. 산책할 때도 신문을 챙겨 그 자리에서 특징과 생김새를 관찰하고 신문에 잘 펴 널었다.

처음엔 교사 혼자 열심이고 아이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야외활동을 하였으나 점차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욕구가 일어났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세를 즐기는 듯 보였다. 햇빛이 내리쬐는 산에서 혼자서 쟁쟁거리며 뜯다보면 어느새 열댓명의 아이들이 모여들고 맘으로 젖은 몸에 흙이나 작은 벌레가 들러붙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풀을 잘도 뜯어온다. (이것으로 나중에 작은 바구니를 만들)

완성 후 환하게 웃으며 한결같이 현관벽을 떠나지 않으며 "아이, 예쁘다"를 연신 내뱉으며 부담없이 만져보고, 기대고 논다. 누구든 그 벽을 보면 한번 만져보고 미소짓는다.



사실 자연물을 이용한 벽꾸미기를 글로 쓰라하니 쑥스럽다. 다른시설 교사들도 다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생색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 굳이 말한다면 교사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힘이 아이들과의 생활속에서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는가를 활동을 통해 검증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몰두, 호흡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벽꾸미기를 통해 나는 그런 재미를 느꼈다.

• 방법

1. 식물을 잘 말려둔다.
2. 전체적으로 벽에 수성페인트를 칠한다.
(교사가 칠을 하자 매우 조심스럽게 다니며 구경한다.)
3. 페인트가 마르기전에 그위에다 꽃잎, 나뭇잎을 붙여 구성하면 그냥 붙는다.
(*"아이, 예쁘다!" "이거 우리가 한 거지요?" "나두 하고 싶다", 마른잎이 잘 부서지고 페인트가 묻어 교사의 붙이는 작업을 도와 주거나 일부는 마당벽에다 물감칠하기 놀이를 함*)
4. 페인트가 마르면 투명 시트지를 조심스럽게 붙인다.
5. 시트지 위에 말린 건물을 얹어 바구니를 만들고 그위에는 바깥놀이 때마다 떨어오는 강아지풀을 꽃아놓곤 한다.



마당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놀이

강영신 · 수원, 평동어린이집

생각하는 어린이집은 수원에 있는 수원여성회라는 여성시민단체에서 사무국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종의 직장보육시설로 마당에 작은 공간의 흙이 있다. 교사 1인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올 초에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놀이를 할까,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야채, 채소, 꽃을 심어보기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는 과학놀이, 역할놀이, 요리활동, 목공놀이 등을 해 보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자주 하기 어려웠던 바깥놀이를 마당놀이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가 있었으며 과학놀이, 미술놀이, 소꿉놀이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다.

아래의 글은 지난 5개월간 진행한 마당을 이용한 여

러 가지 놀이에 대해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정리하다 보니 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고, 그때 그때의 아이들의 살아있는 감동어린 말들을 놓친 것이 아깝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보육형태(방과후, 종일 보육, 반일 보육)로 교육의 방향을 잡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지금 마당에 핀 꽃이나 야채들을 보면서 어느날 하루 그냥 준비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 2000년 2월부터 6월30일까지

아이들: 신한섭 (남 9세), 정동욱 (남 9세), 김윤덕 (여 8세), 김경민 (여 7세), 정재란 (여 7세), 신원섭 (남 6세), 김효태 (남 5세), 김영덕 (여 5세), 이다빈 (여 7세), 배주형 (남 5세)

◆ 화단가꾸기

3월 2일

비둘기가 죽어있었다.

주태가라 도독고양이가 있었는데 비둘기의 몸통은 이미 고양이가 파먹어 깃털만 남아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물어주기로 했다. 아이들이 비둘기 묻은 곳을 가끔씩 확인하곤 했다.

3월 20일

바깥놀이에서 막대를 주워왔다.

어린이집에서 3분 거리인 화성(수원성-일본식 이름이라고 함)에 놀러 나갔다가 야채를 심으면 지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가져 왔다. 아이들과 장갑끼고 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톱으로 자르는 작업 같이 했다. 나무가 겉대로 잘 잘라지지 않았다

4월 18일

시장구경, 모종 구경하고 심기(수세미, 오이 등)

아이들에게 모종을 하나씩 고르라고 해서 비닐봉투에 담아 사왔는데 온전하게 심기가 어려워 아이들에게는 모종을 심은 검은화분(처음살 때 있는 비닐)만 벗겨달라고 해서 심었다. 효태와 원섭이는 끝까지 남아 하나씩 심었다

5월 18일

첫째놀이 - 마당에 습기가 있어 쥐며느리가 (다른 아이들은 콩벌레라고 한다) 많았다. 아이들은 손으로 잡더니 손에 올려놓고 가만히 관찰한다. 쥐며느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시 보준다.

둘째놀이 - 꽃에 있는 진딧물을 손에 가져다보면서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 설명 후 개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점시에 설탕, 소금, 밀가루, 커피를 놓고 개미를 관찰했다. 아이들은 금방 개미가 올 줄 알고 그릇에서 떠나지 못했다.

책을 읽어 달라고 해서 책 가지러 책방에 오니까 실험하는 점시 옆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서 올라가 보고 개미가 파리를 물고 가니까 경민이가 "개미야! 먹을 거 없으면 찾지 말고 저리고 가."하면서 그릇을 가리킨다.

3:30분 선생님! 개미 잡아다가 점시에 올려봐도 돼요?

4:30분 선생님! 개미가 소금이 맛이 없나봐요.

다음에 할 땐 점시에 음식을 놓지 말고 그냥 땅에 놔야겠다.

◆ 요리활동

4월 4일 마당에서 김치전 부쳐 먹기

뚝자리를 깔고 아이들이 한 국자씩 덜어서 김치전을 해 먹었다. 바람이 불어서 화력이 약해 잘 안되었다.

바람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의 화전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봄에 진달래 피면 진달래 화전 해 먹기로 했다.

4월 14일 진달래와진 만들 어먹기

오전에 화성 산책하면서 진달래꽃을 따다가 그릇에 각각 참쌀가루, 물을 주어 반죽하게 하고 진달래 잎에 화전을 해먹었다.

참쌀가루를 미리 반죽해 놓지 않아 찰지지가 않았다.

5월 18일 멀치내장 때어내기

반찬으로 쓸 대, 중의 멀치 분리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했다.

효태는 다른 종이에 분리해 놓은 멀치를 봉지에 담기만 하고 경민이는 다른 면에서는 끈기가 있었는데 멀치다듬기에서는 건성건성하고, 채란이와 원섭이는 머리와 내장을 정리해 주었다. 가끔씩 다듬은 것을 먹어보라고 하면 맛있다는 말을 먹는다.

6월 19일 가지, 오이 따기

텃밭에 심어 놓은 가지와 오이가 제법 자랐다.

텃밭을 아침에 물청소하고 얼마만큼 색이 변했나 관찰했다.

그리고 오이, 가지를 각자 하나씩 따서 씻어 보았다. 오이와 가지의 무게가 달라 아이들이 왜 오이는 가지보다 잘 뜨지 못하냐고 물어본다.

오이는 손으로 잘라서 먹어보고 가지는 판 것 중 제일 작은 것을 칼로 잘라 먹어본다

오이를 씻어 손으로 잘라서 먹으면서 "효태야! 왜 오이가 끈적끈적하지?" 하니까 (채란, 원섭, 경민은 오이를 사무실에 나누어 주려고 들어갔음) 눈은 나를 보면서 손으로 오이의 자른 면을 문지른 다음 다시 물로 씻었다.

우리가 먹은 것 그림그리기를 하는데 아이들 중에서 채란이만 가지그림을 그린 후 반으로(세로) 나눈 후

반은 보라색 반은 검정색을 칠한다.

효태는 타원형 동그라미만 그린 후 검정색으로만 중간에 색칠을 했다

◆ 목공놀이

5월 16일 나무 자르기

동네 수리중인 집에서 자르고 남은 나무들을 가지고 왔다. 장갑끼고 톱으로 나무를 잘랐다. 동욱, 한섭, 영신(나)은 누가 먼저 자르나 숫자를 세면서 시합을 했는데 아이들이 더 금방 잘랐다. 경민, 효태, 원섭이도 꾸준히 끝까지 잘랐다.

이후 작업에서 아이들은 톱질은 좋아했지만 사포로 문지르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6월 7일

목공놀이 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사포로 마무리 중이었다.

"애들아, 우리 오늘 하루종일 해야해." 하니까 원섭이가 "밥도 안먹고요?" 한다.

내가 다섯개씩 가지고 가서 하자 하니까 원섭이가 "왜 경민누나는 작은 거, 그리고 만져보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 가?" 하고 항의한다.

목공놀이 나무를 담기위해 하드보드지를 잘라 상자를 만든 후 아이들과 함께 한지를 잘라 붙이고 투명시트지로 전체를 씌 후 다듬은 나무를 분류해서 담았다.



6월 30일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면서 가디가(강아지) 집이 없어 아이들하고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합판을 잘라 대충 대어보고 아이들과 함께 망치작업을 했다.

비가 그치면 페인트칠을 하기로 했다.

3월부터 강아지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 못 데리고 오고, 추워서 안되고, 동네에 도둑고양이가 있어서 안된다고 미루었다가

강아지를 가지고 올 때쯤에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지킬것인지에 대해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고양이로부터 가

디를 지키는 방법을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 의외의 상상 이 많았다. 교사가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반복해서 말을 해주면 아이들은 오랫동안 생각해서 그 반응이 나타난다.

톱질은 싫어하면서 못질은 좋아했다. 장갑을 끼고 교사가 못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망치로 박았다.

스프레이를 사와 칠했는데 생각보다 누르는게 어려워 힘들어 했다.

편하게 하려고 락카를 이용했는데 페인트칠을 했으면 더 쉽고 아이들이 좋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늦게서야 들었다.

어린이집을 7월14일까지만 운영했는데 나중에 가디를 봐줄 사람이 없어 강아지가 필요한 사람의 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채란이가 경민이에게 편지를 썼다.

비가 오거나 일요일이 되면 가디 밥주러 사무실 가야 된다고 하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있어 엄마들이 나와 강아지 밥을 주었다고 한다.



집이 필요면요
고양이 가요
어떤 거에 가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디가 있는 곳은
잠깐 봐요

예방접종 시킬려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수의사가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고 톱도 치워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순서를 정해 아이들이 강아지 톱을 잘 치워주었다.

◆ 과학놀이

6월 1일 지네 관찰

아침에 마당놀이 하는데 돗자리 옆에 천천히 움직이는 지네를 발견했다. 실로 묶어서 빨래줄에 매달아 놓았다.

아이들에게 지네는 독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과 약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하고 만지지 말 것을 부탁했다. 아이들은 지네 앞에 가서 지네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원섭이가 지네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니까 같은 위치에서 20장 정도를 그려서 가지고 왔다. 지네 대한 옛날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나중에 지네가 말랐는데도 아이들은 자꾸만 물어본다 독이 있다고.

한참 뒤에 동욱이가 빗자루를 가지고 놀다가 지네가 반으로 동강나 버렸다.

지네 보고 그리기



6월 7일

아침부터 비가 약간 와서 아이들이 토마토 밑에 있는 달팽이를 찾아 더듬이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달팽이가 가는 길을 관찰한다

작년에 아이들과(지금의 아이들) 달팽이 기르기를 해 봤고 책을 봐서 달팽이는 먹은 대로 똥의 색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달팽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똥의 색을 보고 말했다. 매일 매일을 땅을 뒤엎고 해서 다음엔 달팽이를 관찰하지 못했다.(1달정도는 꾸준히 했다.)

6월 12일

마당에 돗자리 깔고 과학놀이를 했다.

나무는 왜 흔들릴까요? 마당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움직인다.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바람이 되어 보자고 하니까 다음부터 효태는 화성을 산책가면 나에게 "선생님! 나 봐요. 바람이네요" 하면서 뛰어간다.

강아지는 왜 혀를 내밀고 있나요? 가디가(어린이집 강아지 이름이다. 아이들이 포켓몬스터 에서 나오는 강아지의 이름이라고 한다.) 혀를 내밀고 있음을 보고 설명해 주었다.

구름은 왜 모양이 변하면서 움직일까요? 누워서 하늘을 보니 하얀 구름이 움직이는 데 모양이 계속 변한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배추도사, 무도사때문에 구름이 움직인다고 말한다. 구름 위를 가보자고 말하니까 경민은 비행기에서 끈을 내려서 밑에서 잡아당기면 된다고 말한다

햇빛은 왜 바로 볼 수가 없을까요?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모른다고 한다. 태양이 환해서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고 설명해주고 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달의 모양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통일 놀이

남녀의 8자 놀이와 복녀의 길따라 잡기 놀이

장효진 · 서울 강원초등학교

아래에 소개되는 통일 놀이는 놀이연구회의 '놀' 5월호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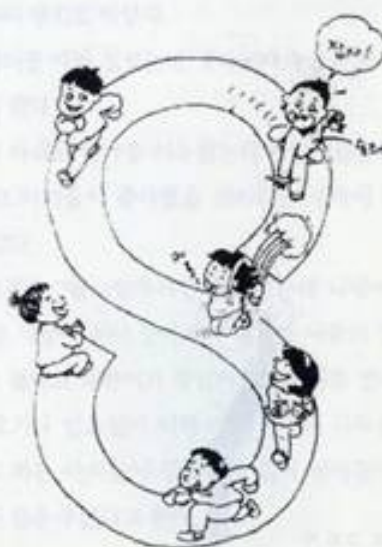
남녀의 8자 놀이와 복녀의 길따라 잡기 놀이는 술래가 정해진 길을 따라 다니며 술래가 아닌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놀이이다. 정해진 길이지만 이용권리를 다르게 부여하여 놀이의 재미를 맛보게 한다.

1. 놀이 방법

(1) 남녀의 8자 놀이

- ①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놀기에 알맞은 놀이이다.
- ② 운동장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린다.

- ③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한명 정한다.
- ④ 술래는 10까지 세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고 다른 사람을 치러 쫓아 다닌다. 이때 술래는 8자 그림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 ⑤ 모든 사람은 8자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
- ⑥ 술래인 사람은 8자 그림 끝과 끝에서 건널 수 없지만 나머지 사람은 건너갈 수 있다.
- ⑦ 술래에게 치이거나 금 밖으로 발이 나가면 죽는다.
- ⑧ 술래가 8자 그림 끝을 넘어서 치면 무효이다.
- ⑨ 죽은 사람이 술래가 되어 놀이를 계속한다.



(2) 복녀의 길 따라잡기 놀이

- ① 10명 정도가 함께 놀기에 알맞은 놀이이다.
- ② 운동장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린다.
- ③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한명 정한다.
- ④ 술래는 10까지 세고 다른 사람을 치러 쫓아 다닌다.
- ⑤ 놀이에 참가한 어린이는 반드시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 ⑥ 범(술래)이 아닌 어린이가 범(술래)만이 다니는 길로 가면 범(술래)이 된다.
- ⑦ 범(술래)은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다녀야 한다. 만약 범(술래)이 다니지 못하는 길로 가서 다른 어린이를 잡았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⑧ 범(술래)과 도망다니는 어린이 모두 길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범이 바뀌고, 범이 벗어난 경우는 잡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복녀 놀이의 특징

복녀의 길 따라잡기 놀이는 남녀의 8자 놀이보다 재미있는 규칙이 한 가지 있다. 남녀의 8자 놀이에는 없는 술래만 다니는 징검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술래와 도망다니는 사람 모두 자신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서 놀이의 재미와 활동력을 더욱 높였다.

3. 놀이 진행의 2단계 방법

- ◆ 1단계 - 남녀의 8자 놀이 방법으로 모둠별 활동을 시킨다.
- ◆ 2단계 - 복녀의 길 따라잡기 놀이 방법으로 전체가 함께 놀아본다.



경상권 여름연수를 마치고

정현옥 · 부산, 쌍쌍어린이집

여름연수 몇주 전부터 찬주 샘은 지회 때마다 연수 이야기를 한다. 올해 처음 보육교사회에 들어와 아직 연수는 어떤 건지, 수련회는 어떤 것인지, 또 총회는 뭔지 경험해 보지 못해 잘 모르는 나에게 여름연수! 여름연수! 하고 선배 샘들이 노래를 불러도 감이 오질 않았다.

현옥이는 종려나무 잎 준비하고,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사진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저 아무것도 모르기에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마음 편하게 연수 전 날 준비물을 가지고 포구나무 어린이집으로 갔다. 근데 이게 뎌 걸? 나같은 신입은 없고 하늘같은 선배들이 가득 모여서 다음 날 있을 연수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풀작시 풀을 다듬고, 한 쪽에서는 보릿대들 자르고 6, 70년대의 가내수공업들 연상시키듯 그렇게들 움직이고 있었다.

'연수다' 하면 다른 누가 준비해 주고 우리는 그저 가서 강의 듣고 배워오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내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하는 모습이었다. 준비물을 챙겨주고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돌아서면서도 웬지모를 미안함에 마음이 불편했다.

여름연수는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터에서 있었다. 우리 것을 찾자는 편혜문 선생님의 옛노래와 옛놀이에 대한 강의는 일본의 문화에 젖어서 무엇이 우리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나에게 또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놀이들이 우리 것이 아닌 일본의 것이라는 얘기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며 그동안 나를 비롯하여 여러 교사들이 얼마나 생각없이 무지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도 우리 것에 대한 강한 목마름을 가시게 해주는 강의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벌써 점심시간이 왔다. 물론 공부의 또다른 재미는 중간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맛있게 점심을 먹고서 여치와 여치집, 풀작시 만들기를 했는데 배우겠다는 열기도 대단했지만 한명 한명 정확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산보육교사회 샘들의 열기가 더 뜨거웠다.

보육교사회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임이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바쁜 일과에 밀려 교육도 잘 받지 못하는 내게 보육교사회는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 여름연수를 통해 난 선배 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발로 뛰는 선배 샘들이 있기에 나같은 신입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 많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여름연수를 마치고 다같이 찍은 단체 사진 속의 샘들 얼굴은 모두가 활짝 웃는 얼굴들이다. 힘든 보육교사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샘들이 참 좋다. 우리 샘들이 언니같이 포근하듯이 이번 여름연수도 부담없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사진 속의 내 얼굴도 참 행복해 보인다.



존재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

이순덕 · 서울 북부지회

아래의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인 '야' 찾았다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딩 땡 쿵따쿵 땡땡 쿵따쿵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 오늘따라 하늘은 목마른 대지에 흠뻑 감로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언제나 연수 때가 되면 각지에서 올라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온 선생님들의 열의는 정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줄 젖줄의 스승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무척이나 쏟아지는 비때문에 잠시 갈등에서 있었던 나를 반성하며 난 자리를 향했다.

전통육아교육의 강의가 무르익어 가고 강사님의 열변은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메아리가 된다.

짧게만 느껴지는 연수!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전래동요 시간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흥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마 이시간 만큼은 우리 모두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래 자장가와 팽팽 장서방으로 시작된 전래동요.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건만 우리의 장단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발성연습을 하고 각팀으로 나누어진 우리는 정해진 공간으로 가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물론 예선전은 없었지만.

우리의 팀장님은 하마 선생님. 그렇게 입은 크지 않은데 왜 하마일까 궁금하지만 하마 선생님의 열의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무지무지 더웠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옮겨 정말 관소리인듯한 소리를 목청껏 할 수 있는 현관에서 감로수를 관객으로 소리를 지나는 비속으로 담아 보냈다.

이렇게 흥의 삼매에 든 우리를 방해한 것은 시간!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언제나 겸손한 한국보육교사회 회장님의 폐회식 인사는 너무 감동 깊다. 그리고 언제나 따스함을 가진 여러 선생님들, 아마도 모두가 인연인가 보다.

난 요즘 연수를 다녀와서 얼마 전 근무하게 된 어린이집에서 자장가를 불러준다. 8개월 된 빈이라는 예쁜 천사인데 우리의 자장가를 불러주면 우유를 두손으로 꼭 쥐고 나의 무릎에 안겨 잠이 든다. 더 놀라운 것은 노래를 하지 않으면 내 입만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나의 입을 만지작거린다.

연수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항상 저희 보육교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이 하 여백과 의 만 남

채미선 선생님

종미숙 · 대구 더넉 어린이집

태 풍 파라피온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이하 여백'으로 알려진 대구의 한사랑 어린이집 채미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대구보육교사회 모임 때마다 맛있는 김밥을 싸오시거나 과자, 통닭등등, 한사랑에서도 점심에 간식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넘 굵은 것을 못본다는 선생님. 졸업하고 한사랑 어린이집에서만 6년째인 채미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 가족사항, 나이, 출신학교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빠 3명, 세째 오빠 언니(올케) 그리고 나. 오빠 2명(첫째, 둘째)은 아직 장가 안갔어요. 나랑 닮았구요. (참고로 채미선 선생님은 모델 뽀치는 미모임).

나이는 30. 효성여대 아동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 한사랑 어린이집에 대해 간단히 소개좀 해주세요.

한사랑 어린이집은 정서장애, 지체장애아를 중심으로 받구요, 지금은 시력 장애아도 3명 있어요. 다른 비영리 어린이집처럼 운영되구요.

3. 그럼 한달 보육료는 얼마 정도예요?

12세 아동까지 종일반 기준으로 12만원. 다른 장애아 교육기관은 보통 35만원일 걸요. 한주일에 5~7시간 교육하구요.

4. 얼마 전부터 한사랑 어린이집이 '24시간 보육'을 하기로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재정적인 이유가 커요. 예전에는 한사랑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것에 또 보육료까지 많이 낮았기 때문에(한달 보육료가 3~5만원 정도였다. 지금의 보육료로 오면 지 얼마 되지 않는단다.) 일약한 환경이라든 경쟁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어린이집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사랑만의 특별한 운영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동은 없어요.

5. 24시간 보육을 하면 많이 힘들텐데...?

아동이 많아지면 24시간 전담 보육사가 있어야지요. 낮시간에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보육사가 있고 일종의 기숙학교처럼 운영할꺼예요.

6.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보육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힘든 점은?

교육적인 효과요. 안하면 표시나고 해도 표시 안나고 뭐 가사일처럼, 그리고 해도 해도 한계를 넘지 못할 때, 스스로 교육적인 한계를 느낄 때 힘들다고 할수 있죠.

7. 그럼 행복 할때는요?

민재예요.(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하신다.) 한사랑에 처음 와서 맡은 아이가 민재였는데 8살이었요. 그 아이를 만난 것이 내게는 너무 큰 행운이고 행복이고 그

래요.(역시 보육교사들은 아이들 애기를 하면 그칠 줄을 모른다.) 정서장애에 자폐증상도 좀 있었는데 민재에게 정을 붙이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스스로 교사로도 많이 컸어요. 엄청 엄하게 교육 했었는데, 문제행동이 있을 때마다 꼭 지적하고 어깨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재 부모님도 저를 믿고 민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 소신대로 민재를 교육 할수도 있어 구요. 지금은 청소년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연락 안 할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인연을 맺으면 안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전까지 따로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금요일마다 민재 집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락 안 해요.

(민재 애기를 하는 채미선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내 얘기도 한참을 했지요.)

8. 선생님 한사랑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벌써 6년째인데 그럼 길거리에서 성인 장애인을 보면 어때요? 나는 아직도 좀 어색한데...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몇년전에 시내 지하도에서 땅보고 걷고 있는데 정신지체 어린이 갑자기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피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스스로 그 사실에 놀랐었는데 그게 다예요. 다른 사람과 보기에 많이 다른 장애인을 만나면 놀라기도 하고.

한사랑에서 일하고 처음에는 길거리 다니면 장애인들만 눈에 보였어요. 저사람은 정서장애, 저 사람은 다운증후군, 저 사람은 정신지체 뭐 이런. 근데 사람들의 특별한 눈빛보다 차라리 무관심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눈이 장애인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꺼예요.

9. 아동학과를 나오셨는데 대학 다닐때의 보육교사의 상과 지금의 보육교사의 상 어때요?

사실 아동학과는 점수 왕창 낮춰서 취직 잘되는 과를 선택한거예요. 그래서 몇번 휴학도 하고 과사람들과 4학년 1학기때까지 얘기도 안하고 과에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한사랑도 처음에는 몇달해서 돈벌어서

나가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매력이 엄청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육교사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 어린이집은 여러 교사가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다른 교사의 교육방법에 간섭하고 자기 것과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정말 그 교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0. 보육교사를 오래하다보면 스스로 재충전이나 재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있어요. 방학중에 보육 전문 서적 3권 읽기. 나는 주로 문제행동 뒤의 심리적인 내용의 서적을 많이 봐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하나 정해서 하루에 한번은 꼭 관찰하고 생각해요.

11. 보육교사 말고 달리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글쓰기요. 고등학교 때까지 소설 써서 반에 돌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쓴다면 평론이나 철학, 논수필 종류. 근데 안 할 거예요. 보육교사가 말고 딴 것은 안 하지 싶어요.

12.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나는 술마시는 것 그리고 책읽기로 풀어요. 술은 취해서 넘어갈 정도로 마시거나 철학책을 읽거나. (채미선 선생님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술 취한 다음의 뒷얘기도 여럿이었지요. 다음에 만나면 들어보세요)

13. 요리 실력이 끝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의 비법이 있다면

한마디로 양념 짭. 그리고 엄청 맵게해요. 좀 싱거우면서 엄청 맵게 그러면 보통 다 맛있다고 하지요. 하하하...

이날 몸도 안 좋았는데 어색한 인터뷰 해 주신 채미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경자의

전성시대

안경자 · 이경자 선생님

박영미 · 회원

아 이 날고 한참 정신없이 지내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그리워질 무렵, 찬 하고 나타났던 대표님의 방문은 정말 반갑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인물탐방기를 계속 이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온몸을 누르기 시작할 때 너무도 반가운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서울지부 북부지회의 회장인 안경자 선생님! "자기 소식 잘 봤어...(중략)...우리 북부지회 모임하는데..." 이 말에 놓칠새라 "언니, 나도 끼워줘요" "좋지, 꼭 와." 이렇게 하여 이번 인물탐방은 북부지회의 모임을 함께 하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모임을 놓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북부지회의 신입회원이며 총무를 맡고 계시는 이경자 선생님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지회 안에 같은 이름으로 미혼이란 점도 같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교사 생활의 햇수가 다른 두 선생님을 한번에!! 우여곡절 끝에 더위의 끝자락인 9월 2일 오후,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둘째 녀석을 데리고 11년 경력의 토끼띠 안경자 선생님과 삼십대 새내기 이경자 선생님(담띠임), 이 두 분과의 만남을 위해 특별한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가치런히 놓인 모래 삶이 너무도 정겨운 작은 마당을 지나 둥근나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서자 토요일 늦은 시간에도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과 놀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걱정엔 "원래 이래."하며 웃어넘기는 안선생님의 모습에 넉넉한 여유와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지회 선생님들 속속 도착하고 시원시원한 말투에 짧은 커트머리의 이경자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 안선생님이 솜씨를 발휘하신 오징어불고기와 두부김치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단골 중국집에서 시킨 새싹대야 만한 점시에 가득 담긴 탕수육과 잡채에 물만두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음식들을 보며 모두들 "북부지회 분위기 손 큰건 알아줘야해!" "먹는데 충실해야..." 등등의 감탄을 뒤로하고 일단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서로에 대해 알아 가는 시간. 안선생님에 대한 선생님들의 느낌을 잠깐 엿보면 자기일에 철저한 사람, 조용하고 빈틈없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꼼꼼하면서도 아이들 일에는 물불을 안가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이경자선생님에 대한 느낌도 궁금해 지는 이 순간 모두를 감동시킨 별칭이 있었는데 바로 '북한산'. 오르고 싶고, 사계절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모두 다르며 늘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이선생님에 대한 느낌이라고 말하는 순간(이윤경대표님의 탁월한 표현임)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과 감동의 눈물로 모임을 끝내고 따로 두 경자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글이 짧은 제 솜씨로 제대로 옮길 수 있을지...

오사저서로 편지

이경자 선생님에게 물어본 이야기들



하나, 어린이집 교사생활을 시작한 동기가 궁금한데요.

단체에서 상근간사 생활도 하고 다른 일들을 쫓 랐었는데 어른들하고 일하다 보니 힘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좋고 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괜찮겠다 싶었지요.

둘, 보육교사가 되어 제일 좋은 것과 힘든 것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애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잡무가 많은 것이 힘들지요. 글썽 이 선생님은 밥을 처음 해보셨대요. 7년 정도의 자취생활이 있었음에도 밥하는 걸 싫어해서 주로 라면 등과 친하게 지내셨다는군요. 그래서 선생님의 건강이 너무너무 걱정되었는데 아 직은 건강하다며 씩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아이같았습니다.

셋, 애인은요?

다른일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보수적이에요. 먼저 다가서는 것이 잘 안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느낌이 오는 사람은 있어요. (여기에 얽힌 일화 하나 선생님이 처음 우리 어린이집에 오기 전 일년내에 결혼하면

안된다는 대표교사의 지엄한 말쑈에 '걱정 마시라, 난 일년은 사귀어 보고 결혼해야 하는 성격이니까 일년내에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는군요.)

넷, 보육교사회에 일을 하며 느낀점은 어떤가요? 그리고 신입회원으로 지회 총무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처음 어린이집 일을 시작하며 힘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육교사회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총무일은 별로 선택의 여지없이 하게 되었고 사실 일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다섯,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새로운 것들을 찾고 연구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까워요. 차량지도로 시간 보내고 그 사이 식사준비며 오후에는 간식 만들기 까지 정말 바빠요.

이경자 선생님은 오래도록 일을 하실 계획이랍니다. (적어도 5-6년!) 한마디 한마디 진지한 대답을 하는 선생님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편 선생님에게서 묻어나는 외로움은 감추어지지 않았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이경자선생님의 적궁 어디 없나요?

안경자 선생님에게 물어본 이야기들

아나, 입을 때는 어
떻게 하세요?
자고 여행하고 마
음 통하는 사람과 수다
떨고 그래요. 사실 십년



넘게 한가지 일을 해오면서 힘들 때가 어찌 한 두번이
섰겠어요 (선생님의 표현대로 옮기면 미아리 지하철
에 내리면 어린이집에 오기가 싫고 도봉산으로 가고
싶은 적도 있었대요)

둘, [아동복지센터 동근나라가 되었다는데 어떤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동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센터가 중심이 되
고 어린이집은 부설기관이 되는 셈이지요. 앞으로 영
유아 그들(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빈곤 등의 이유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
경을 만들어 일정기간 보호, 양육하는 곳으로, 중요한
시기인 7세 이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국
내 유일이라고 합니다.)을 하게 되는 데 올해는 5명
정도가 들어 올 예정입니다. 사실 준비할 것들이 많지
요. 자모관계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전문적인 생활교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큰 걱정은
안해요.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딪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셋, 보육교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보육교사는 기능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
로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하죠. 마

음은 닫지
않으면 고이
게 되요. 아
이들과의 관계
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우면서 자기마음을 들여다 보아
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시 내공이 깃든 말씀)

넷, 10년 뒤 선생님 모습은 어떨까요?

(조금도 주저없이) 할머니가 되어도 아이들이 날 좋
아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면 할수록 이 일은 내 일이라
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이 일은 계속
할 생각이예요 (역시 건강이 또 한번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
지요. 이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잘 조
절하고 통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안경자 선생님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도
해야하고 다독거리기도 해야하고요. 그러나 원칙을
가진 선생님이기엔 걱정없지요. 다만 선생님이 힘들
때 함께 수다를 떨 사람들이 많으면 더욱 좋을 것 같
았습니다.

복부지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역시 진
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자 선생님의 미래를 들으
면서 요즘 복부지회는 아름다운 경자의 전성시대임을
실감할 수 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가락이, 가람이가 인사 드립니다.

변미양 · 양예희

"아, 차가워! 엄마, 가락이도 얼음베개 해 주세요~"

"가락이는 열이 나지 않잖아. 가람이는 열이 나니까 얼음베개 하는 거야."

"싫어, 싫어. 가락이도 열이 나요. 얼음베개 해 주세요~"

결국 미열이 있는 가람(둘째 아들)이에게 해 주려던 얼음베개는 고사리 손으로 제 이마를 대고 있는 가락(첫째
아들)이에게 내어 주고 새로운 얼음베개를 만들어 올 수 밖에...

이제 2살하고 7개월이 된 가락이, 아직 2개월 3주가 채 안된 가람이.

일본 오사카에 와서 3년 조금 더 살고 있는 변미양의 삶의 자취라고나 할까.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올려 보내요, 「우리네 아이들」.

늘 생각은 가득한데 일꾼들의 이름이 모두 새롭고 간부들의 이름 가운데는 전에 일선에서 함께 뛰던 그리운
이들도 있어 세월의 변화가 느껴져요.

모두들 이 무더위에도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땀방울이 보이구요.

정말 수고들 많습시다.

둘째가 생기자 조금은 익숙해진 이곳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7월 초에는 갑자기 한달바기 가람이가 입원을 하는 큰 일도 치렀지요. 간난 아기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력과 모유에 들어 있는 면역 성분 등으로 높은 열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39°
가 넘는 고열이 나 한밤 중에 응급차에 실려 가 급히 입원했지요.

열흘간 작은 손등에 줄곧 링겔을 꽂고 항생제에 뒤편에 계속 약을 투입하면서 지내야 했는데 작고 작은 가람이
에게는 정말 안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가벼운 기관지염인 줄 알았는데 결국 혈액 검사, 윈트젠 촬영, 수액 검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은 '수
막염'이라는 무서운 병명이었습니다. 뇌 속에 위일즈가 들어가 작은 아기의 몸 속을 헤코지 하고 있었는데, 심한
경우는 의식 장애나 발육 부진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 퇴원 후 뇌파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가 없
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야 한대요.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또 아기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2000년의 상반기는 지나 버렸
네요.



정말 여유없이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네 아이들' 78월호가 맞아 주더군요. 고맙고 반갑고 정겨웠어요. 언제나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격려해 주는 '우리네 아이들'이네요.

그간 통 연락도 하지 못한 게 진짜 미안했어요.



지금 가락이는 보육원에 가 있고, 가람이는 압전히 낮잠을 자고 있어요.

미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 젓먹이고, 기저귀 갈고 빨고 개고, 밥 짓고 차우며,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며, 시간이 이렇게 아깝게 흘러 가는구나 어이없어 하며, 양말을 벗어 빨래통에 잘 담아놓으라 남편에게 잔소리 하며, 눈가의 기미와 늘어난 허리 둘레에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의 자신에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꼭 조이고 밋밋한 생활의 어디에 여유가 숨어 있을까 잘 찾아 보면서 자신을 격려해 주자고 마음 먹어요. 일요일은 기저귀 빨래를 남편에게 맡기자, 전업주부도 일요일은 빨래 휴일을 선언하자, 월급 받아오면 나에게도 용돈을 나눠주고, 가스레인저 앞에서 불과 싸우며 무더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외식을 하자고 하자,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지만 자신도 많이 사랑하며 칭찬해 주자! 그렇게 자신에게 여유를 주려고 마음 먹어요.

지독히 가정 속으로, 개인적으로만 매몰되어 전업주부의 권태감이 쌓여가지만 건강하고 아무지게 자라주는 가락이, 나날이 재롱이 늘어가는 순하고 착한 가람이. 이 보배둥이들을 낳고 키우는 제 일선의 엄마로서 더 슬기롭게 더 많이 웃으면서 살자고 마음 먹는답니다.

우리네 아이들의 모든 선생님들도 이 더위에 여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조심들 하시구요, 더 즐겁고 밝은 얼굴로 또 만나자구요.

8월 10일에



어느 특별한 초대

주혜민 · 서울 남부, 씩씩아이어린이집

얼마 전 씩씩이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것도 하루 일과를 끝낸 시간인 저녁 시간에 말입니다. 초대받은 곳은 "관악지역에 살고 계시던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을 위한 환송식"이었지요.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나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처음엔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참석시키고 축하공연을 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이산가족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지만 아직 이 사회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받아들이기엔 이념이 앞설 거라는 염려가 있었지요. 또한 저녁 8시가 되어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에 밤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부담도 있었거니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이러저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갖고 일단 긴급교사회의를 했고 그 래도 참석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적으로 교사의 몫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부모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도 어렵 아주 작은 일이지만 통일을 위한 실천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그러나 이해해주세요. 씩씩이 교사들의 사고는 다소 과장될 때가 많지만 의미를 찾아내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파라는 걸요.

하여튼 그날부터 부모님들에게 초대받은 곳과 환송식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들의 염려와는 달리 쉽게 이해를 해주었고 아이들 또한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2곡을 선정해 하루에 한번씩 연습하는데 잘 따라 주었지요.

그렇게 4일이 지난 후, 늦은 시간 아이들은 봉고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갔고 예상외로 너무 잘해서 여러 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선생님들의 눈시울엔 작은 이슬이 맺히시기도 했지요. 아이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얼마나 알고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이든 할아버지들이시지만 그분들은 용감하고 멋진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요. 또한 자신들이 부른 노래의 뜻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그후에도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은 아이들이긴 교사건 감동으로 들떠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녁 10시가 되어서 피곤을 할 수 있었지만 잔잔한 마음이 있었기에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답니다.



언젠가 다른 지역의 교사가 그랬다는군요. 휴가 기간에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 이틀만에 아이들 보러 어린이집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떠나 내가 교사로서 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쉬는 날이면 휴가기간에는 아이들 생각이 나질 않고 때론 까마득하게 잊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때론 말썽을 너무 부려 고민이 되는 녀석이 생겼거나 내 스스로 갈등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되어서야 한두명의 녀석이 떠오르곤 했지요. 웬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비인간적인 교사처럼 비취질 것 같아 두렵긴 하지만 사실인걸 어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준 감동의 모습이 내일부터 갖게 될 휴가 기간 내내 미소를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드니까요. 그래 봤자 인간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로 비취지긴 글렀지만 이것 또한 사실인걸 어찌겠습니까. 아이들이 보여주는 감동만큼 움직여지는 나의 속 좁은 마음에 동감하는 교사도 있겠지요.

나주산 신고배 팝니다.

나주에서 배농사를 짓는 신랑과 살고 있는 이산주씨의 소개로 저렴한 가격에(택배비 포함) 배를 팝니다.
전국 어디로든 산지에서 직접 택배로 배달 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국민은행 019-21-0952-190 예금주: 이윤경 으로 입금하신 후 02-2275-8505 로 전화 하세요.
신청하실 때 배를 받을 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꼭 말씀해 주세요.

나주 신고배 15kg 한상자

크 기	수 량	가 격
大	15~20개	40,000원
中	20~25개	35,000원
小	25~30개	30,000원
배급	150개	40,000원

* 가격은 시세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



01

정릉 산책길에서....

수현(6세): (나무에 걸린 프랭카드를 보면서) 산불조심이란 글자죠? 선생님!

교사: 그래 맞아.

진희(6세): 산불조심은 산에 불이 있다는 뜻이야!

교사와 아이들: 무슨 소리야???



02

그 배가 아닌데

민기네 집을 향해 가는 길...

교사: 아~ 배아파. (덥다고 얼음을 많이 먹어 배탈이 난 듯)

민기(4세): 안돼요. 어린이집에 가서 통 누세요!



03

수혁이의 복수혈전

감기로 아팠던 수혁이가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생겼다.

교사: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네? 그러면 바람둥이라는데. 수혁이 바람둥이 되겠다.

수혁(8세): (반대쪽 눈을 비비며) 아니예요. 이쪽 눈도 비비면 쌍꺼풀이 생겨요.

교사: 안 생기잖아. 앞으로 수혁이를 '둥이'라고 불러야지. 둥이, 둥이~

수혁이는 탄소리만 하며 연신 다른쪽 눈을 비벼댔고, 대포를 쏘는 거라며 오전에 정풍에서 주워 온 도토리를 교사에게 마구마구 쏘아댔다.



04

바다에 사는 코끼리

교사: 가람이는 방학 때 뭐했어?

가람(5세):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서 상어도 보구, 원숭이도 보구, 코끼리랑 고래도 봤어요.

교사: 정말? 바다에 코끼리가 있었어?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랑 결혼했다더니 사실인가...



나현이의 육아일기

- 5개월~10개월

김연숙 · 회원

2000년 2월 27일 월요일

어제 처음으로 나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엉덩이 진무른 데를 비누로 씻었더니 갑자기 숨이 막히도록 자지러지게 울었다. 금방 그치긴 했지만 정말 아팠나 보다. 요즘엔 머리 감을 때도 칭얼댄다. 오늘 아침에는 단 숨에 160ml를 먹길래 컨디션을 되찾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먹는 게 신통치 않고 똥도 조금씩 내 번을 썼다. 자꾸 얇은 잠을 자서 하루 종일 졸려 보낸다. 잠이 오면 무척이나 시끄러워진다. 며칠 나현이 데리고 나돌아 다녔더니 피곤하다. 8kg가 넘어가니까 장난이 아니다. 요즘에야 비로소 나현이의 존재가 실감이 난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애뜻한 마음이 생긴다. 얼른 엄마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다들 그때부터 힘들어 진다고 하지만 나현이의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올 때 비로소 나현이가 내 딸인 것이 실감이 날 것 같다. 정말 나현이가 나에게 엄마라고 부를까?

2000년 3월 20일 월요일

우리 아기 이 났다. 어제 저녁에도 안 보이더니 오늘 저녁 아- 할 때 보니까 하얀 이가 머리를 쭉 내밀었다. 오늘 또 똥 때문에 고생을 했다. 내 똥만큼 굵은 똥이 힘겹게 빠져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노란 묽은 똥이 줄줄이 나왔다. 굵은 똥은 물기 하나 없이 딱딱하고 진 녹색인 걸 보면 이미 우유가 소화될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 사과를 먹어도 그걸 밀어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똥 자체를 물게 만들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유에 사과즙을 조금씩 섞어 먹이기로 했다. 그리고 상태를 좀 두고 보자. 새끼가 똥 잘 싸는 게 그리도 신통하고 예쁘다더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헐어서 췌

어진 똥구멍으로 굵은 똥이 힘겹게 빠져 나오는 걸 보니 심장이 별렁거렸다. 오늘 공주가 처음 유모차에 앉아보았다. 다리 하나는 건방지게 팔걸이 위에 툭 얹어놓고, 한 다리는 흔들흔들 꺼떡거리면서 병글병글 두리번거렸다. 내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고개를 젓혀 뒤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 떡두꺼비는 항상 기분이 좋다. 아니, 흥분 상태라고 해야 맞다. 똥이 그리 좋은지 병글병글, 팔 다리는 파닥파닥. 궁금한 것도 많고 수다스럽기까지 하다. 귀여운 내 강아지.

2000년 4월 17일 월요일

우리 강아지는 엄마가 만들어준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고 만지면 안 되는 것만 만지고 다닌다. 엄마의 작품인 서랍장 골판지를 굵어서 소리를 내고 꽃을 뜯으려고 한다. 애초에 서랍장을 만들었을 때부터 아빠는 심히 불안해했다. 아빠나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 그걸 망가뜨렸을 때의 그 사태에 관해서 말이다. 하지만 할 수 없다. 우리 새끼 장난감으로 기꺼이 줄 수 있다. 왜냐면 서랍장 재질의 소리가 정말로 재미있기 때문이다. 똥니똥니해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회전목마이다. 보행기에 앉아서 회전목마를 돌리며 팔걸이, 등판, 바닥, 쇠봉을 만지며 탐색한다. 팔걸이는 까실까실 하고, 쇠 봉은 차갑고 매끄럽고, 바닥은 얇은 비닐이 씌워져 있어 소리나 감촉이 최상이다. 등판의 나무는 두들겨서 소리를 내고 가방까지 걸려 있으면 금상첨화다. 가방에 달린 지퍼, 아! 또 꼬리표를 무척 좋아한다. 잘 보이지도 않는 낡은 꼬리표를 큰 이불에서 찾아내서 만지작거리면서 집중한다. 옷과 가방 모두 그렇다.

2000년 4월 19일 수요일

참으로 어리석다. 나현이도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건가? 나현이의 컨디션을 내 맘대로 조절하려고 한다. 요 며칠 최악으로 안 먹었다. 설사 기가 약간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이 우유만 잘 안 먹었다. 자꾸만 안타깝고 짜증이 나서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어제 저녁 약을 먹고 오늘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저도 사람인데 어떤 이유로 입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린다. 자꾸 억지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하니까 배치기, 뒤집기, 비틀기로 거부, 반항을 한다. 나현이에게 좀 느긋해지자. 어리석은 엄마야!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요즘 우리 아이가 (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무래도 입에서 밖에 나가 재운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 쉽게 재우려고 시작한 것이 오

2000년 6월 24일 토요일

히려 버릇만 나쁘게 들었다. 집에만 들어오면 깨고, 내려놓기만 하면 운다. 다쳐서 크게 울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똑! 이다. 안고 앉아 있으면 땅으로 팔을 뻗쳐 벽이나 땅바닥을 그렇게 만지고 싶어한다. 아무튼 그냥 누워서 자기엔 이 벽 저 벽에 머리를 너무 많이 박고 심한 몸부림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옛날이야기를 해서 재우는 방법을 도입했다.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양 어느 대목에서는 꺾꺾 웃기도 하고 '이눔' 하는 대목에서는 울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효과가 좋다. 언제나 연구해보고 싶은 문제지만 아기들은 왜 잠들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난 잠이 오면 무지 행복한데..... 아마도 할 일(?)은 많은데 본의 아니게 몸이 이상해지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피로운 게 아닌가 싶다. 잘 것처럼 하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아 박수를 치고, 엄지, 검지, 중지를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가며 곤지곤지를 하고 급기야는 일어서서 침대를 마구 두들긴다. 거기엔 노래방에서 지르는 환호성까지 질러가며, 거의 공포다.

오늘 나현이가 색다른 행동을 했다. 공으로 와와를 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다 공을 대주었다. 원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검지 손가락만 펴고 상대방의 입 속에도 넣곤 하더니 오늘은 공을 입에다 넣어주었는데 이걸 정말 놀라운 행동이었다. 나도 같이 와와를 해주니까 자기 한 번, 나 한 번 계속 그렇게 했다. 더 놀라운 건 먹은 것도 달라고 입을 벌리면 입에 넣어준다는 것이다. 나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아기들이 배우는 행동들은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행동을 강화시켜줄 때 즉, 놀이를 함께 해준다는 것 행동에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다. 물론 나현이는 엄마 닮아서 그런지 흉내내기를 좋아한다. 아무튼 짹짹, 곤지곤지, 빠이빠이, 박치기, 때때때, 싫어싫어 등도 다 그렇게 배운 것이다. 아침에 갑자기 뭔가를 못하게 했더니 머리를 숙이고 몸까지 흔들면서 머리통을 흔들었다. 아마도 때를 쓰는 것이었나 보다. 근데 "싫어, 싫어?" 하고 말하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말만 하면 머리를 흔들어대는 것이다. 요즘엔 고집이 세져서 못하게 해도 필사적으로 달겨든다. 또 우리의 관습으로는 "누가, 누가 그랬어" 하는 말로 아이를 달래고 넘어진 바닥을 때때해주는 양육법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행여 남을 닮는 습관으로 이어지거나 않을까 해서 나는 절대 하지 말자 했는데 자꾸만 다치니까 나도 모

르게 그런 말이 나오곤 했었다. 결국에는 나현이가 그걸 배워서 며칠 전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나더니 '에이 때때' 하고 말하니까 자기가 벽을 때때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에도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다친다. 기다가도 꼭 쓰러져서 모서리에 머리 내지는 얼굴 박기는 일쑤고, 구르다가 벽이나 장롱에 머리 박기, 여기저기 손/발 끼기, 방바닥에 펴 엎어져 코나 입 부딪치기 등 매일 다쳐서 우는 게 울기의 80%다. 지금도 볼 광대뼈 부분엔 퍼런 멍이, 이마 옆엔 빨간 멍이 들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멍 자국이 금방 사라진다. 세게 다쳐도 멍도 잘 안 들고, 전에 씹씹이에서 어떤 사고쟁이 녀석의 흉을 그렇게 봤었는데 우리 딸이 그렇다. 뭐든 다 꼬집어내기, 특히 꼬발 딛고 꼬집어내리기, 준 것 안 갖고 놀고 남의 것 방해하기(그것도 필사적으로), 신문 보면 그 위에 올라앉기도망 다니면서 한 장씩 때려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깔고 뭉갠다. 종이 종류는 무조건 다 구기고 찢는데 사진을 보면 한 장도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구겨 놓는다. 거기다 요 염소새끼가 종이는 조금씩 뜯어먹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우유 콧까지 뜯어먹었다. 아무튼 요즘이 관찰력이나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기인 것 같다. 정말 하루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한다.



멍멍 의사 선생님

이진실 · 인천, 샘터어린이집

베넷 글, 그림 / 박찬순 옮김 / 보리출판사 / 7,000원

얼마전 귀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의사들의 '폐업'으로 그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한창 '의약분업'에 대한 일들로 떠들썩하고, 당장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의료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만약 검보일씨네 가족처럼 병을 고쳐주는 '멍멍 의사 선생님'과 같이 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겠지요. 거기다 알기 쉽게 병이 왜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말해주거든요.

키트는 자전거 창고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기침



을 심하게 하고 있었죠.

우리 가슴 속에는 스펀지 같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데 필요한 '폐'가 있지요.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면 타르라는 더러운 찌꺼기가 폐에 가득 차서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기침이 나온다고 말해줍니다.

키트는 비오는 날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밖에 나갔다 그만 감기에 걸려 목이 퉁퉁 부어 올랐어요. 편도선에 병균이 들어와 염증이 생겨 수술로 편도선을 떼어내 주었습니다.

케브는 머리를 빙글 굴러 대서 선생님이 머리속을 돌보기로 보니 '서캐'가 살고 있었지요. 이를 없애주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을 잔뜩 발라주고 다른 사람하고 빗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막내는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손가락을 빨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자기 콧구멍을 찔러도 내버려두고요.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알고 보니 기생충이 생겼지 뭐예요. 이 대목에서 아이들이 뜨끔하는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봅니다. 다들 경험했던 일인 것 같아요.

"기생충은 몸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똥구멍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알을 잔뜩 낳는데 그러면 똥구멍이 간질간질해요. 엉덩이를 손으로 긁으면, 알들이 손톱 밑에 끼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을 빨면 그 알들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알들이 깨어나 기생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긁지 마

세요. 손가락도 빨면 안돼요." 멍멍 선생님의 말씀.

피오나는 푹하면 어지럽다고 해서 보니, 귓속에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뼈에 문제가 있어 약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맥주와 붉은 콩을 너무 많이 먹어 뱃속에 가스가 찼어요. 그 가스가 빠져나가려면 방귀가 되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뱃속에 가스가 점점 더, 점점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드디어 똥우우웅! 방귀가 얼마나 센지 지붕이 날아가는 대목이 이 책의 절정입니다. 아이들은 하하 웃으며 화장실 변기가 어디로 날아갔나 손가락으로 찾아봅니다.

식구들 병을 모두 고쳐주느라 아프게 된 멍멍 선생님은 '성가신 가족들로 벗어나서 푹 쉬세요'란 다른 의사 말에 한적한 바닷가로 쉬러 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반전되어 더 재미있답니다.

'우리도 좀 쉬어야겠어. 곧 그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사랑하는 검보일 가족이' 이런 소식을 접한 멍멍 선생님은 '오, 안-돼!'

이 책은 아이들과 어른인 저도 보는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세워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막막했던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습니다. 병을 설명하는 '몸의 단면도' 그림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출판사 소개가 나오는 면 위부분에 잔뜩 짐을 들고 오는 검보일 가족 모습과 앞 뒤 속표지에 멍멍 선생님이 쓰는 각종 약병과 진료기구 그림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엄마가 알을 낳았다>, <따로따로 행복하게>로 잘 알려진 베넷 글 특유의 익살스럽고 장난스러운 그림과 사실적이고 코믹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칫 다루기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문제들을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이 작가만의 특별한 재주라고 봅니다.

저희 어린이집 6~7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도 담배 피워요, 담배 나쁘지요?"

엄마, 머리는 매일 감아야 해. 선생님이 벌레들은 더러운 곳을 좋아한대

OO는 손가락 빨아서 배에 벌레 생기겠다

엄마, 귀에는 달팽이처럼 생긴 벌레(?)가 있어서 이걸 만지면 귀가 아프대

아빠, 엄마 맥주 마셔서 방귀 뀌나봐요"



통일을 앞당기는 햇불이기를

박상익 · 회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밤새 사건과 사고로 새벽녘이 되기 전에 벌써 세상은 지쳐있다. 20대의 여자가 가족들에게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이 발단이 되어 서울대생처럼 살다가 결혼 후 청와대 연구팀이라 속여 40여 억원을 사기한 사건이 발생했다느니, 두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느니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항암작용을 한다느니 등등 하루, 이틀만 신문을 보지 않아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와는 무관하게 돌아가, 세상에서 밀려나게 된다. 사회인으로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다. 적어도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얼마 전 남북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가족들과 뜨거운 상봉을 하였다. 이념과 사상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혈육, 특히나 우리네 정서 속에서의 혈육은 내 삶과 내 피, 바로 나의 분신이다. 그네들의 눈물겨운 상봉과 오열, 만나지 못한 이들의 절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이들의 허망,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 드라마였다.

그네들의 눈물 속에 섞여 다른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비전향 장기수"들이었다. 4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사회와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되어 더 이상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바로 "비전향 장기수"이다. 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반공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모든 제도나 법에서 철저히 외면되어 살아오면서도 그들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왔던 어르신들.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면서까지 감수하였던 그네들의 의지가 이제는 받아들여져 그들이 원하는 세계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체제나 이념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민족의 당면 과제라면, 비전향 장기수들의 복송문제는 어차피 존재하는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한다는 또 다른 의미의 과제이다. 남한의 정부는 북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북의 정부존재, 정치이념과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공법에 위반되기에 중대한 형벌로 다루었다. 하물며 북의 정부, 이념, 체제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닌 그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정부, 체제임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들이었기에 그들의 복송문제는 곧 북한을 적대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북한의 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드디어 그들이 평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반공으로 툭툭 뭉친 이 땅에

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그들

의 사상과 체제를 찾아 떠나려고 한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하였고, 참기 어려운 나날들을 잘

참고 견뎌온 결실을 이제 맺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가족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만 북으로

보낸다는니, 인도적 차원에서 원하는 가족들까지 함께 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네들의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산가족이 생산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한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체제와 이념으로 인한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가족까지 북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분들의 소망과 희망이 더 늦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여야 할 일이지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인 통일도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속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이 선도적이고 선구적이었듯이 통일을 앞당기는 햇불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89년 연세대학교 노천광장에서 눈물 흘리며 '직녀에게'라는 노래를 부르던 장기수 할아버님이 생각한다. 그 할아버님이 꿈에도 그리던 북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을 흐리실 것을 생각하며 모두 건강하시어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을 기원한다.



www.maf.go.kr

임미란 · 회원

여러분, 아이들과 농업과 관련된 수업하려면 힘드시죠? 이제 걱정 그만~~입니다. 여길 이용해 보세요. 이곳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과 과일, 간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거두어서 여러분의 식탁까지 전달이 되는지와 농업이 왜 필요하고 자연·환경과 인간은 틀이 아닌 하나라는 것 등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한 곳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나 자세히 살펴보아요.

농업이란	농업의 기능과 역사, 재래농기구, 현대농기구 및 농기계, 친환경농산물, 농촌의 현실 및 해결방안, 농수산관련직업 등을 살펴봅니다.
농산물의 종류	곡식, 과일, 채소, 가축, 특용작물, 버섯, 꽃(꽃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첩 굶네	곤충관찰, 식물키우기 및 관찰일기, 비료, 수정제배, 우리농산물로 만든 먹거리,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을 통해 직접 농업을 체험해 봅니다.
유익한 사이트	동화, 속담, 격언을 볼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유익한 사이트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농업학교	농업에 대한 12단계의 문제풀이를 통해 농업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화로 배우는 농업	농업이야기를 만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농업 사이버 카드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에게 예쁜 카드를 보내봅니다.
오락퀴즈 굶네	농업과 관련된 퀴즈와 오락을 즐겨봅니다.
게시판	농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친구, 운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내용에 들어가보면 농업사이트라고 해서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 보시고 맘편히 먹고 오락사이트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도

실망하지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한 농사하러 떠나 볼까요?

【예고】

다음 초부터는 여러분 수업하시는 생활 주제별로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그 커리를 주로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아 잡지를 중심으로 할까 하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둘리의 캐나다 여행

김영수 · 부산지부

아래의 글은 부산지부 소식지인 '부산보육교사회'에 실린 글입니다.

내가 캐나다를 갔다 오니 글로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부산바닥에 "둘리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다.

내 개인적인 고민이야 어찌되었든 일단 접어두고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생활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하고 행복해야 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여하튼 편한 팔자 둘리의 여행기를 한국보육교사회 선생님들에게 풀어 놓을까 한다.

한 번 배낭여행에 맛들인 사람이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여행을 한다는 것은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즐겨보던 사람이 비디오방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재미는 있지만 극장에서 보는 것과는 분명 그 감동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와서는 누가 원고 청탁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감동을 주재하지 못해 글을 줄줄 써내려 갔었는데, 올해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서는 원고 청탁을 받고도 이를 쟁쟁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아 땀만 뻘뻘 흘리며 앉아 있다.

그래서 잔머리로만 팬티업급을 자랑하는 내가 생각해낸 것이 '질문하고 대답하기' 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지금 이 순간 '참, 둘리 별 웃기는 짓을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1. 캐나다 가니까 좋드나?

당근, 너무너무 좋지요. 공항에서 내려 밴쿠버로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기가 질린 것은 2~30미터의 높이와 어마어마한 둘레를 자랑하는 나무들이 아주 흔하게 도심 곳곳에 자리한 공원에 수두룩했다는 것이예요. 우리 나라는 그 정도 되면 울긋불긋 당산 나무가 되었거나, 수령 몇 백년이라는 팻말과 함께 울타리가 쳐져있었을 건데.

2. 어디가 제일 좋드노?

로키 산맥에 있는 빙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거대한 얼음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얼음덩이로 이루어진 산이었어요)에 설상차(얼음 위를 달리는 특수차)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세상에 그 얼음 두께가 50미터나 된다고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산이 조금씩 작아진대요.

참 그리고 여기서 설상차 운전기사를 사귀게 되었어요. 27살의 멋진 백인남자였어요.(부럽죠? 짝깁)

3. 신기한 것은 없드나?

길거리(산복도로)에서 곰을 만났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가끔씩 봄에 겨울잠을 자고 난 곰이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아이들을 해쳐서 신문에 나기도 한대요. 그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잡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데, 사람을 해친 동물은 반드시 잡는대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먹이를 주어서 안된대요. 그 외에도 족제비, 산양, 사슴 등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4. 캐나다의 '문화' 뭐 구런 거 좀 느껴 봤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캐나다는 모자이크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수십 개의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으면서, 철저히 법적, 제도적으로 그들 소수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그곳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 학교를 세워야겠다고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 그런 학교를 세워주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주 반대로 또 다른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융합 문화라고 해요. 모든 민족의 문화를 한 곳에 넣고 파작 섞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든대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캐나다 사람들을 보고 '촌놈'이라고 싫어하고, 캐나다인들은 미국인을 보고 '잡놈'이라고 하며 서로서로 싫어한대요.

미국 이민 2세대들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별 문제가 없는 반면, 캐나다 이민 2세대들은 한국말을 아주 잘 한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한국말을 못하면 소외 받는대요.

캐나다는 민족이 많은 만큼 인종도 다양한데 인종평등과 남녀평등에 대한 것도 철저하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부색깔로 인해서 또는 나이와 성별로 인해서 직장 면접에서 탈락된다면 재판을 걸 수 있는데 그러면 백발백중 이기게 되고 엄청난 보상까지 받게 된대요.

그런데 웃긴 것은 철저히 인종 평등주의를 펼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인종차별을 한대요. 유색인종은 절대 상류사회에 끼일 수가 없대요. 캐나다에서 상류사회라고 하면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클럽을 일컫는데 그 클럽에 들어가려면 그들 회원이 전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유색인종은 그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대요. 법적인 틀을 벗어난 철저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것은 어떤 체형과 얼굴의 나이를 가졌건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었으며, 그 누구도 그걸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헤비급 여인의 배꼽티 패션이었어요.)

5.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드나?

같은 팀의 아저씨 이야기인데, 한 번은 대형 할인 마트로 쇼핑을 하러 갔었는데 이 아저씨가 꿀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꿀을 구경하다가 문득 '로얄제리'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저씨: (어색한 웃음을 띠며, 겨우 눈동자가 파란 점원과 눈빛을 마주치며) 로얄제리?

점원: (파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What?

아저씨: (잠깐 머리를 재빠르게 굴려서) 킹 비이트!!! (왕벌이 먹는 거)

점원: (잠시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알겠다는 미소를 지으며) Ok, ok, Wait!

사라진 점원 잠시 후 한 손에 캔 맥주를 들고 나타났다. '비(Bee)'를 'beer'라고 알아들은 것이다. 드디어 흥분한 아저씨! 손짓 발짓이 시작되었다.

아저씨: (양팔을 넓게 벌려 날개처럼 파닥파닥거리며) 노 비어! 플라이 비!

아저씨가 설명하면 할수록 점원의 눈은 더욱 파래져 갔고, 점원의 눈이 파래져가면 갈수록 아저씨의 손과 발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이 날 아저씨의 결론은 캐나다 여왕벌들은 로얄제리를 안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점원이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희망세상 이사 갑니다!

백예경 · 인천, 희망세상 어린이집

아래의 글은 인천지부 소식지 '강아지 똥' 7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희망세상을 이사하기 전 마지막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부쩍 이나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희망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7~8개월된 아가 8명이 전부였고 이젠 그 아이들이 6살이나 되었네요. 그때 보육교사 경력 불과 4개월인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조금은 버겁기도 했지만 사실 겁이 없었던 거였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무 경험 없이 영아들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찔한 일이던지...

처음엔 그저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나에게 해 주셨던 것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이들에게 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전문적인 연구자료도 거의 없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5년을 내내 영아보육만 해온 나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물론 보람도 크겠지만 여기 저기 불은 군살과 더불어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입니다. 휘어진 허리에 잦은 감기, 소화기 장애 등등...

또 영아보육을 위한 지침서도 거의 없어 참으로 많이 어려웠지요. 가장 참기 힘든 건 장시간 노동에 지친 몸보다는 아무도 교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예, 보육교사예요."

"아! 유치원 같은 곳이지?"

"아뇨, 아기들을 돌보는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지지요. '왜 그런 일을 하나' 싶은 가련한 표정으로 정말이지 보육교사, 특히 영아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아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도요. 물론 아이를 많이 키워본 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 가는 것만이 보람이고 희망인 것 같습니다. 영아보육교사들이 모여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힘든 어깨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집으로 이사하면 당분간 영아반은 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땐 '정말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힘든 것도 아무렇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 파라다이스아카데미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위한 교사연수

사회적으로 일반 보육 요구 못지 않게 장애아 보육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유아의 무상교육과 특수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보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적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라다이스복지재단과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가 장애아동보육에 대한 기반지식과 대처능력 등을 증진시켜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아동보육에 관심이 많은 보육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0년 9월 30일(토) 오전 9시~18시

장소: 한울복지관 3층 소강당 ☎ 450-9842

대상: 전국의 보육교사

참가비: 2만원 (본회 회원은 할인됩니다.)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접수 및 문의: 전화 접수 ☎ 02-275-8505 이경네 사전 입금 (국민은행 019-21-0952-190 예금주: 이윤경)
접수 마감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일정표

시간	내용	진행자
09:00 ~ 09:30	여는 마당	한국보육교사회
09:30 ~ 10:30	총론 - 장애아동 선별제도와 보육교사의 역할	고동영 연구소장
10:30 ~ 10:50	휴식	
10:50 ~ 12:30	21세기와 특수교육	신현기 교수(현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12:30 ~ 13:30	중식	
13:30 ~ 15:30	장애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숙도 검사 I	전병운 교수(현 광주대 교수)
15:30 ~ 15:50	휴식	
15:50 ~ 18:00	장애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숙도 검사 II	전병운 교수

연수내용

1) 총론

- 선진국의 장애아동선별 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선별제도와 보육교사 역할

2) 21세기와 특수교육

- 특수교육에 대한 21세기의 새로운 인식과 평가
- 새로운 특수교육 성립과정에 영향을 미친 학자

- 특수교육 성립과정에서의 법적 투쟁

- 장애인 교육법(IDEA)

- 21세기 특수교육 체제 변화를 위한 방안

3) 장애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숙도검사

- 사회적 행동
- 사회적 능력의 사정
- 사회적 능력과 다른 발달과의 관계
- 사회성숙도검사

○ 연수장소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5번 출구, 세라튼위키힐호텔 방면 도보5분



알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중인 교사, 예비 보육교사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각각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1. 대상

- * 실직 보육교사
- *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예정자

2. 일정표

교육	내 용	강 의 일 자	수강료	장 소
연극놀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과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연극놀이 활동중심	8월 31일 9월 1, 7, 8일	무료	청산 교육장
컴퓨터 교육	기본서식 만들기에서 나만의 편집기법까지, 소식지를 자유자재로...	9월 20, 22, 27, 29일	"	진보넷 교육장
국악과 전래놀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배우기, 소고, 장단 익히기 등 국악 중심교육	10월 5, 6, 12, 13일	"	청산 교육장
놀이감 제작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및 미술활동,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놀이감 제작	10월 19, 20, 26, 27일	"	청산 교육장

- * 각 강의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실직 보육교사 우선 순위로 마감합니다.

3. 신청방법

*전화 및 Internet 접수
Homepage = www.kdta.or.kr
Tel = 02-2271-1548 Fax = 02-2275-8506

주관: 한국보육교사회

주최: 산업국복국민운동본부

후원: 근로복지공단, 한겨레 신문, MBC



알림

서울지부 교육강좌

전래놀이 특강

일시: 9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 회의실

지도: 이상옥(한국보육교사회 교육연구팀)

참가비: 회원은 무료/ 자료회원은 2,000원/ 비회원은 5,000원

문의 및 신청: 02-2268-3954

(선착순 15명만 접수합니다. 서두르세요!)

유아교사를 위한 민속문학 강좌 안내

강사: 권해문

기간: 7월 25일 ~ 10월 17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장소: 미학연구소(051-241-5898)

참가비: 한 강좌 당 1만원 (회원 10강좌에 7만원)

강좌내용

- 1주 - 이 세상은,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생겼나요?(신화 1)
- 2주 - 우리 나라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들이 많이 있나요?(신화 2)
- 3주 - 옛날에 정말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전설 1)
- 4주 - 옛날에 정말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전설 2)
- 5주 - 옛날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살았나요?(민담 1)
- 6주 - 옛날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했나요?(민담 2)
- 7주 - 옛날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옛아이들 놀이)
- 8주 - 옛날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옛 아이들 노래)
- 9주 - 선생님 우리 수수께끼해요?(수수께끼)
- 10주 - 옛말은 또 뭐예요?(속담)



아동 힘키우기(Child Empowering) 프로그램 안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인 '아동 힘키우기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내용

교육	회 수	주요 내용	비고
아동 교육	1회 (40-45분)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개념을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아동 자신이 권리의 주체임을 알게 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그림판, 동화구연, 활동자료집
	2회 (40-45분)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동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다.	해부학적 인형, 보호받는 상황·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림판
	3회 (40-45분)	[우리의 권리를 게임으로 배워요]. 1,2회 교육내용을 게임을 통해 확인하고 위협한 상황(학대 포함)에서 적절히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게임판
부모 교육	1회 (120분)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발달단계를 이해하고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법을 고찰한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을 통해 가정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학대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부모양육태도지표, 아동학대 관련 OMR, 슬라이드 자료
	2회 (120분)	[아동의 권리와 감성다루기]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하게 한다. 또한 아동과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간단한 기술을 익힌다.	UN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그림판, 부모·자녀갈등상황 그림판
교사 교육	1회 (120분)	[아동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문제와 현황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교육자료, 아동학대 관련 OMR, 슬라이드 자료
	2회 (120분)	[아동학대 대처하기] 실제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구체적 지침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자료

2. 실시방법

- 대상: 서울 지역의 7세 아동, 부모, 교사
- 장소: 본 회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 파견
- 기간: 2000년 7월 20일 - 12월 31일
- 참가비: 무료
- 교육시간: 아동 - 40-45분씩 총 3회, 부모 - 120분씩 총 2회, 교사 - 120분씩 총 2회

3. 문의: 한국이웃사랑회 성북아동학대상담센터 강미경 총무 ☎ 02-923-5670, 5440



내가 할래요

(디딤교육원/ 김각훈 원 1만8천원, 언어치료 2만원, 조기교육 2만원, 3권 세트 5만5천원)

최근 장애통합보육이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 그간의 교육 경험을 살려 디딤교육원에서 발간한 특수교육교재로,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각훈원, 언어치료, 조기 교육 각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조윤경, 박은하 외 22명

김수인: 장혜성, 박용수, 윤석용

문의: 02-2275-8505(한국보육교사회), 02-489-1005(대한사회복지개발원)

◎ <알림이>를 모집합니다

자기 주변의 작은 애기들을 소개하거나 작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알림이>를 모집합니다.

지부 지회와 자료회원들이 개신 주변의 기쁨, 슬픔 등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회원과 자료회원은 모두 가능하며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02-2275-8505로 연락 주세요.

◎ 주위에 [우리네 아이들]을 추천하실 분은 신청하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주위에 권해 드리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받으실 분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그 달에 발행되는 우리네 아이들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육교사와 아동에 대한 건강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 제 3기 생태유아교육강좌 II

일시: 2000년 9월 2일 ~ 11월 3일 격주로 금요일 오후 7시 ~ 9시,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정보센터내 1층 원경 시청각실

주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부산대보육정보센터

참가비: 일반 8만원, 개별 강좌 1만원

문의: 051-510-1586

강좌	강좌내용
1강	생태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 세상
2강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3강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참된 삶 - 귀농, 노동, 수행, 청빈
4강	옛날 아이들은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5강	선생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쉬고 싶어요
6강	삶과 교육에서 시간과 올바른 관계 맺기
7강	제1부 옛날 아이들은 산과 들, 냇가, 바다에서 어떤 놀이와 노래를 부르며 놀았을까? 제2부 하늘, 땅, 해, 달, 별, 물, 불, 나무, 꽃... 이것이 생긴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까?
8강	생태적 삶과 유아교육

■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부모교육 강연회 I

- 함께 자라는 아이들,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강의 1 -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이기범 - 숙명여대 교수, 공동육아연구원 공동대표)

강의 2 - 함께 크는 아이가 행복하다 (정유성 - 서강대 교수)

주최: 공동육아연구원

강연회 일정: 9월 16일 오후 3시~5시 (준천), 9월 23일(대전), 9월 30일(대구), 10월 14일(부산), 10월 21일(일산)

문의: 764-0606(공동육아연구원)

■ 극단 사다리의 아동극 < 꿈을 꾸는 아이 >

꿈 속에서 만나는 상상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진진한 모험이 넘치는 상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요!

일시: 2000년 9월 2일~30일

장소: 샘터 파랑새 극장

문의: 743-1683, 763-8969



■ 어린이를 위한 무료 인형극 정기 공연 안내

지구촌민속박물관에서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린이를 위한 인성교육으로서 무료 인형극 정기 공연을 합니다.

공연제목: 빨간 모자

장소: 남산 서울타워 지구촌민속박물관

공연시간: 매일 11시~1시 사이 3회 공연(일요일 제외)

■ 제 5회 인천 인권 영화제

The 5th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HURIFF)

- 인권(忍權),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어느덧 인천 인권 영화제가 제 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영상, 자유에의 갈망을 표현' 하며 지금에 이른 제 5회 인천 인권 영화제!!!

이번 제 5회 인천 인권 영화제는 국내외를 비롯한 인권지역의 인권 현실을 영상을 통해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크게 여성인권, 노동인권,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고 그 밖의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올바르게 누리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장으로 이번 인권 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일시: 2000년 10월 6일 ~ 8일

장소: 인천 종합 문화 예술회관 국제 회의실 및 야외공연장

▷ 노래패 공연, 가수 초청 공연, 탈춤 공연과 다양한 전시회도 있습니다.

▷ 이번 인권영화제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연락처 및 문의사항은 인권영화제 준비위원회 ☎ 032) 871-0861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영작】

상실의 시대 (청소년 영화)

배일을 벗기다 (노동 영화)

전사의 징표 (여성 영화)

이반 (동성애 영화)

우리들의 역사, 노동자의 역사 (노동 영화) Exx (청소년 영화)

Red Hunt 2 (제주 4.3)

먼지달린 인형 (여성 영화)

있다/없다 (여성 영화)

Out at work (동성애 영화)

마우스 콘서트 (노동 영화)

낙대 (청소년 영화)

1984, 우리는 합창한다 (노동 영화)

평화란 없다 (여성 영화)

패스트 푸드 우먼 (여성 영화)

미키마우스 아이티에 가다 (노동 영화)



■ 7월 7일 여연복지위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제 3차 이사회

7월 8일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 7월 10일 공동육아원에서 열린 〈실외활동 프로그램 개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1일~7월 15일 여연이 주최하고 4박5일동안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진행된 〈여성운동 지도자 과정〉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이수하였습니다.

독일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

7월 21일 독일의 아동학을 전공하신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유아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강연회를 서울시보육정보센터와 공동주최로 실시하였습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가 각 권역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은 7월 22일에, 전라권은 8월 5일, 경상권은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며 주제는 "전통육아와 전래 노래"였습니다. 모두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 8월 10일 민주당에서 주최한 〈여성단체 초청 2001년 정부여성관련 예산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수련회

8월 17~18일 부산에서 여연 활동가 수련회가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기원 공동대표와 이경녀 사무국장, 박정애 상담팀장, 구미진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총연합회 등 유치원계 인사 7명과 우리 회동 보육시설계 5명, 학계·학부모연대 등 총 30명이 참석하여 "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 대책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본 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8월 19일 경기도 민보련이 주최한 〈경기도 민보련 임원단 워크샵〉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 8월 21일 보육정보연구소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기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은애연구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하여 소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이후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8월 23일 여연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집행위 M.T

8월 23~24일 집행위 M.T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활동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 8월 29일 여연복지위에서 주최한 〈혼자사는 여성 자립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7월 29일/ 8월 26일에는 노수산선생님과 함께 하는 미술소모임이 있었습니다.
- 8월 13일에는 짝짝이 어린이집에서 집행부와 지회장들이 함께 서울지부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 하였습니다.

북부지회

- 여름연수 후에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뒷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 7월 28일 월례회를 가지고 친목을 도모했다는군요.

서부지회

- 지회 총무에 어깨동무 조선훈 선생님이 선임되어 활동하십니다.

남부지회

- 상반기 활동에 대해 부담없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회원간의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더욱 즐겁고 소중한 지회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지부

- 8월 5일 확대임원회의 (소모임장, 부사장, 차장, 운영위원, 이상미선생님)

· 소모임 활동이 점검되어졌으며, 지부 여름연수 준비팀을 꾸렸습니다.

(조직부 + 각 부서에서 1인 + 신입회원 + 회장이 결합되어집니다.)

· 8월 6일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00년 인천시민통일한마당이 인천대공원에서 있었습니다.(운영위에서 행사의 의미를 검토, 공유하고 후원 하였습니다.)

· 8월 19~20일 인천지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 10월 5, 6, 7일 인권영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교육부장(이인희선생님)이 행사준비위원회에 결합하여 우리지부에 유의미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영화가 선정되어 상영된다고 합니다.(회원 중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인희 선생님께 연락주세요.)

· 예술어린이집은 예술의 역사를 살린 육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며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희망세상어린이집인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9월 1일 이전합니다.

희망세상 어린이집 인수하실 분을 찾습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032-432-0617)

광주전남지부

· 8월 5일 ~ 6일에 걸쳐 전라권 여름연수와 광주전남 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연수는 '전통을 주제로 한 통합교육활동'의 내용이었으며, 마을수준교육과정 연구소 문재현 소장님과 김영금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련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회원서로가 솔직하게 자기를 이야기 하면서 서로를 아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8월 31일에는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소식과소식

우리회의 조직진단을 통해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산지부

- 7월 23일 부산보육교사회와 부산 연합 공동 주최로 '제1회 어린이통일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 7월 25일 부산보육교사회와 미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우리 아이들에게 옛이야기, 옛이야들 노래, 수수께끼, 옛말을 어떻게 들려줄까?'라는 주제로 강좌를 실시했으며 회원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 7월 30일 '남누리 북누리 2000여성 통일 한마당'에 참가했습니다.
- 8월 6일 경상권 여름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8월 19~20일에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 부산보육교사회와 미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매주 1회 '편해문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편집부가 만들어 졌습니다. 편집위원은 김정애, 김순아, 허은정 선생님입니다.

수원지회

- 8월20일(화요일) 월례회를 했습니다
- 어린이집을 퇴직한 이주영 선생님, 정말 배가 부른 (9월초 예정일)윤금주 선생님도 함께 했습니다. 올해 수원회 주제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달에는 이주영 선생님이 오감을 통한 미술활동에 대해 발표를 해 주셨고 다음달엔 영아 및 유아를 통합, 쪽물들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서울 서부지회 이준희 선생님이 <파란마을 합창단 (지도교수: 김성균)>의 단원으로 8월에 울산과 창원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단원이 되신 이준희 선생님 축하해요!!
- 서울 남부지회 차윤희선생님(새터 어린이집)의 귀여운 딸 홍가영이의 뽕잔치가 9월2일에 있습니다.
- 부산지부의 김계화 선생님이 한달 빠른 7월 2일에 예쁜 아가를 출산 했습니다. 고놈 되게 급했나 봅니다.
- 역시 부산 지부의 안명희 선생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재는 출산 휴가 중이랍니다. 몸조리 잘 하세요
- 인천의 안경아 선생님이 임신 5개월입니다. 나래어린이집 터가 임신이 잘되는 터 인 듯 합니다. 힘들 텐데도 내색없이 다른 교사들 불편하지 않게 애쓰시는 딸기 선생님 화이팅!
- 인천의 김정숙 선생님이 9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10월 중순쯤이면 건강한 아가를 만날 수 있겠다고 합니다. 부디 순산하세요.

건강하세요.

- 인천의 백혜경 선생님이 그동안 여기저기 아팠는데 이번에 큰 맘 먹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염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잘 받고 완쾌되세요.

환영합니다.

- 서울지부의 김순정, 강민아, 이진선 선생님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 울산의 홍현지 선생님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이직합니다.

- 수원지회의 강영신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정리되어 평동 어린이집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지부-북부지회> 8월 완납
- <서울지부-남부지회> 6월 완납
- <서울지부-서부지회> 6월 일부
- <인천지부> 7월 완납
- <광주전남지부> 5월 완납
- <부산지부> 7월 완납
- <대구지부> 6월 완납
- <전북지부> 2월 완납
- <수원지회>
- <기타>
- 이진선 1만원, 신은정 2만원, 이민제 1만원, 임은영 1만원, 임미화 1만원, 홍현지1만원, 위양자 4만원, 김순정 1만원, 이선주 6만원, 황미혜 5만원
- <자료회원>
- 김태후, 백혜리, 김경순, 김성희, 안경숙, 최주연, 신미연, 서재림, 박미화, 이은경, 박경희, 박정희
- <후원회 주셨습니다>
- 후원회 234만원, 김진숙 1만원, 김수연 1만원, 고영미 1만원, 이인희 1만원, 최화영 1만원, 김용미 1만원, 황미혜 5만원

본회 7·8월 활동일지

7월 7일	여연복지위
8일	제3차 이사회
15일	미술소모임
18일	확대집행위
19일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
21일	독일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
22일	수도권 여름연수
8월 5일	전라권 여름연수
6일	경상권 여름연수
9일	확대집행위
10일	2001년도 정부여성관련 예산 간담회
12일	경기지부 추진위 회의
17-18일	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수련회
18일	유아교육발전위원회 간담회
21일	한국보육정보연구소와의 간담회
23일	여연 복지위
23-24일	확대집행위 MT
29일	혼자사는 여성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31일	보육교사취업지원교육-연극놀이



편집부에서

8월 14일에 한양대에서 개최한 통일축전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범민족대회를 참가하려면 산을 타고, 개구멍으로 기어다니고, 담 넘어 다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편안하게 지나가려니 왠지 좀 어색하기조차 했습니다.

한양대에 들어가니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이더군요.

특히 그동안 사회 생활하느라 집회 한번 참석하기 힘들었던 386세대들이 이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족동반 소풍을 오듯 아이들 모였더군요. 학교 동문회 깃발들도 심심찮게 보이고, 정말 가족 야유회에 늘려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통일 기운이 계속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보육교사회도 우리회 깃발아래 많은 회원들과 모여 통일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에서 하면 더 좋겠죠?

이번 호부터 우리네 아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지역 알림이를 모집하고 우리네 아이들 받아보실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좀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자료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월령에 따라 성장하는 나현이의 모습을 기록일지 형식으로 소개했던 육아일기를 다음호부터는 형식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현이도 이제는 돌이 지나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예쁜 짓도 많이 하고 말썽도 제법 부린답니다. 다음호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나현이의 작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육아일기를 소개합니다.

이번호 어린이와 건강은 사정상 쉽니다.



교사현안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 이 되시면

- 매월 1만원+8(연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 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회원 이 되시면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외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자료 회원은 중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정회원은 중앙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 → 지부, 지회로 연결 → 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른
송금구좌: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 천리안, 나우누리 KDTA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천리안 KDIRC